

文學碩士 學位論文

新羅王京의 成立과 擴張에 관한 研究
- 도로유구와 기와건물지를 중심으로 -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金正萬

2007年 6月

新羅王京의 成立과 擴張에 관한 研究
-도로유구와 기와건물지를 중심으로-

指導教授 金昌鎬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6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金正萬

金正萬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07年 6月

目 次

I. 머리말	1
II. 신라왕경의 연구 현황	2
III. 왕경의 개념과 범위	5
1. 왕경의 개념	5
2. 왕경의 범위	6
IV. 왕경지구에서 조사된 도로유구 및 기와건물지	7
1. 도로유구	7
2. 기와 건물지	17
V. 신라왕경의 성립과 확장방향	22
1. 성립기의 왕경	22
2. 1차 확장기의 왕경	25
3. 2차 확장기의 왕경	26
VI. 맺음말	29

표 목 차

<표 1> 금석문에 나타난 신라 6부의 명칭	8
<표 2> 왕경 규모·범위 연구 집성표	10
<표 3> 경주지역에서 조사된 도로유구	20
<표 4>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신라 홍수 관련 기사	34

도 목 차

<도 1> 황룡사지 동편 新羅坊	11
<도 2> 서부동 19번지 도로 유적 도로유구 배치도	13
<도 3> 경주박물관부지내 유적 유구배치도	16
<도 4> 동천동 유적 유구배치도	18
<도 5> 황룡사지 중심곽 유구현황도	23
<도 6> 전랑지 추정배치도	24
<도 7> 분황사 금당 배치도	27
<도 8> 황룡사 가람변천도	30
<도 9> 전랑지 출토 보상화문 塼	32
<도 10> 전랑지 출토 수막새	32
<도 11> 도로유구 현황도	42
<도 12> 신라왕경 확장 방향 추정도	43
<도 13> 新羅王京 復元案(藤島亥治郎)	44
<도 14> 新羅王京 復元案(윤무병)	44
<도 15> 新羅王京 復元案(東潮·田中俊明)	45
<도 16> 新羅王京 復元案(우성훈)	45
<도 17> 新羅王京 復元案(박방룡)	46
<도 18> 나정 유구배치도	47
<도 19> 인왕동 유적 도로 출토 토기	48
<도 20> 북문로 유적 동서도로 출토 토수기와	48

사진 목차

<사진 1> 나정 팔각건물지 전경	25
<사진 2> 나정 출토 ‘儀鳳四年’명 기와	26
<사진 3> 안압지 출토 ‘儀鳳四年’명 기와	26
<사진 4> 월성 출토 ‘在城’ 銘 수막새	29

I. 머리말

신라의 수도로 있었던 경주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1970대에 이르러 우리의 손으로 천마총과 황남대총, 안압지 등의 대규모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1980년대가 되면서 급격한 도시화와 더불어 수많은 건축공사가 수반되고 이에 따라 구제발굴의 수와 규모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신라 왕경에 조성된 사찰과 기와건물지, 도로유구 등의 유적이 다수 발굴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신라왕경에 대한 연구도 도성제와 더불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신라의 도읍을 부르는 말로 금성과 월성, 만월성 등으로 불리고 있지만, 통일이후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王都, 王京, 大京, 京師, 京都, 京邑, 京城, 都城, 王城, 京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¹⁾ 그러나 이것은 수도를 가리키는 대명사일 뿐이고 본래의 고유명사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용어 가운데 어떠한 것을 쓰더라도 틀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王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신라왕경은 고고학과 역사학, 건축사학 등 다방면에 걸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신라가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오랜기간 존속된 나라이면서 경주평야에 도읍을 정한 후 단 한 번의 천도없이 왕경으로 유지한 결과 현재까지 그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있기 때문에 연구 여건이 좋은 편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신라왕경과 관련된 연구 경향은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신라왕경의 복원을 위한 것으로 현지조사와 발굴조사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지형도 상에 지할을 한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하다. 두번째는 왕경을 형성한 六村·六部の 위치비정에 관한 연구들이며, 세 번째 연구 경향으로는 신라왕경의 성립과 발전에 관한 것으로 최근 들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문헌자료의 부족과 해석상의 차이점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설득

1) 山田陸文, 「新羅金京復元試論」, 『考古學研究』第159, 2002, p. 12.

력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헌상의 자료부족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경주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왕경관련 유적이다. 왕경 관련 유적에는 도로유구와 건물지, 사지 등 기타 많은 유적이 있겠지만 이 가운데 신라의 정보와 물자가 오고가는 도로는 도시의 유지와 관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시설물가운데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시설물 가운데 하나였다.

한 국가에서 도시가 형성되려면 방어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도시를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하여 신라는 왕경에 중국식 도성제를 도입하여 신라왕경에 방리제를 실시하였음을 문헌자료와 고고학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도로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재의 도시계획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도로유구는 왕경의 범위와 발전방향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로유구와 함께 왕경의 범위와 발전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와 건물지이다. 기와는 궁궐뿐만 아니라 사찰과 귀족의 주거공간의 주된 지붕재료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경주에서 조사된 도로유구와 기와건물지를 중심으로 축조시기와 축조방법등을 살펴보고 신라에서 언제 조방제에 의한 도시계획이 이루어 졌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확대·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신라왕경의 연구 현황

신라왕경과 관련된 연구경향은 위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시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본고와 관련된 도시구조의 복원적 연구와²⁾ 신라왕경의 형성과정과 변천에 관한 논고³⁾들만 간략히

2) 藤島玄治郎, 「新羅王都復元論」, 『朝鮮建築史論』 영인본, 경인문화사, 1930.

尹武炳, 「新羅王都의 方制」, 『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韓國史學論集』, 1987.

東潮 田中俊明 『韓國の古代遺蹟』 1, 新羅編(慶州), 1988.

張順鏞, 「新羅王京의 都市計劃에 관한 研究」,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閔德植, 「新羅王京의 都市計劃에 관한 試考」, 『史叢』 35 36, 1989.

申昌秀, 「中古期 王京의 寺刹과 都市計劃」,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 論文集』 16, 慶州

정리해 보겠다.

신라왕경의 도시구조 復元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日本人학자 藤島亥治郎의 『朝鮮建築史論』이다. 이 연구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 시대의 寺院·寺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하여 경주의 지도와 지적도를 이용한 연구이다. 그는 신라왕경의 시가지 구성은 1변이 약 400尺(東魏尺)⁴⁾인 정방형의 블록으로 방격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하고, 월성을 중심으로 한 주축 선인 주작대로에 해당하는 도로의 서편에 월성이 위치하고 있고 시가지 전체를 左·右京으로 나누는 한편, 왕경의 전체 규모중 左京의 동서 길이는 7,120尺, 右京의 동서 길이는 7,280尺으로, 남북의 길이는 좌경에서는 12,860尺, 右京에서는 13,220尺으로 각각 복원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일본 平城京의 1坊 16坪制를 신라왕경에 대입하여 시가지 전체가 동서 8坊, 남북 8條로 이루어지고 각 條坊은 평성경과 마찬가지로 다시 16坪으로 각각 분할되는 신라왕경의 도시계획을 상정하였는데, 남북방향으로 10條를 설정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左京과 右京의 시가지 편성에

市 東國大學校新羅文化研究所, 1995.

- 3) 吳英勳, 「新羅王京에 대한 考察」, 『慶州史學』 12집, 慶州史學會, 1987.
姜鍾元, 「新羅 王京의 形成過程」, 忠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93.
朴方龍, 「新羅 都城 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98.
李恩碩, 「왕경의 성립과 발전」, 『통일신라시대고고학』, 28회 고고학대회, 한국고고학회, 2004.
- 4) 여기에서 당시에 사용되었던 척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떠한 척도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신라왕경의 방의 크기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량형 제도는 국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며 공정한 거래나 조세의 징수 등에 있어서 도량형의 통일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국가를 세우거나 새 왕조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도량형 제도의 통일을 시도하였다. 신라에서 어떠한 척도를 사용했는지는 여러 설이 있으나 대체로 통일이 되면서 부터는 唐尺(29.7cm)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우태, 「한국 고대의 척도」, 『泰東古典研究』 창간호, 1984.

신라왕경 연구에서 척도의 기준은 모두 東魏尺을 기준으로 복원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東魏(534~550)는 북위가 양분되는 와중에서 혼란한 가운데 탄생하여 불과 16년 만에 없어진 나라로서, 이런 나라의 척도가 별다른 이유없이 삼국에 도입되어 일반화 되었다고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東魏尺의 길이에 대해서도 신라왕경 연구자 들은 모두 35cm내외로 판단하고 있는데, 朴贊興에 의하면 東魏尺은 30.05cm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朴贊興, 「高句麗尺에 대한 研究」, 『史叢』 제44집. 그러나 장경호에 의하면 황룡사의 건물배치에 사용된尺은 동위척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장경호 「用尺에 關한 考察」, 『皇龍寺』發掘調査報告書 I, 1984.

서 약간의 설계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신라왕경의 도시계획이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 실시된 것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후지시마의 견해는 왕경의 범위 설정에 있어 오류를 범하였다. 그것은 왕경의 범위가 북천과 남천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았는데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성과에 비추어 보면 북천과 남천을 넘어 왕경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尹武炳은 「新羅王京의 坊制」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藤島亥治郎의 연구 오류를 비판하였다.⁵⁾ 그는 藤島亥治郎이 궁성의 위치를 월성 일대로 국한시킨 것과 남북대로를 월성과 황룡사의 중간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남북대로는 궁성 정문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의 왕궁으로는 劑藤忠이 발굴조사하여 발표한 城東洞遺蹟으로 보았고, 월성 중앙에서 북으로 연결된 폭120m의 남북대로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대소 도로망으로 左右 대칭으로 이루어진 35坊의 도시 형태로 보았다. 이때 1개의 방의 눈금 길이를 東魏尺으로 동서 460尺(160m), 남북 400尺(140m)로 정해서 측정하였다. 그리고 일본 平城京과 대비시켜 양자간의 유사성을 도출하여 신라의 왕경이 일본 平城宮의 1坊 16坪制와 같은 1坊 16小區域分割制였다고 보았다. 왕경은 동서 길이 3,900m의 방형 바둑판의 형태인 도시로 계획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윤무병의 견해는 왕궁의 위치를 월성이 아닌 전랑지를 왕궁으로 추정한 것은 새로운 견해이자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생각되나 그가 추정한 월성과 전랑지 사이의 주작대로는 인왕동 유적의 발굴조사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東潮·田中俊明은⁶⁾ 藤島亥治郎의 견해에 대하여 방의 크기가 400東魏尺 단위로 되어 있는 점, 남북 축을 경계로 左·右京으로 나누어진 점, 동서와 남북의 길이가 8리로 계획된 점, 도성을 둘러싼 성곽(羅城)이 없는 점, 1개의 리가 16개의 坊으로 이루어진 점, 도로의 폭이 40尺 또는 80尺으로 계획된 점 등은 일본의 平城京 및 平安京과 비슷하나 신라왕경은 일본의 도성 계획에 비해 정연하지 않은데, 이것은 지형적인 특성 때문이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도성제도를 받아들여 신라는 오랜 세월을 걸쳐 여러 왕조의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으로 보았다.

5) 藤島亥治郎, 앞의 논문, 1930.

6) 東潮 田中俊明, 앞의 책, 1988.

이 견해는 앞서 연구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왕경의 범위를 후지시마의 案과 동일하게 설정 하였으며 거기에 더하여 남북을 경계로 한 대로의 존재 등에 있어 발굴성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張順鏞은⁷⁾ 기존의 왕경연구에서 설정한 경주 분지에서 핵심 도심 일부 중 일부 범위에만 한정했던 것을 비판하고 기존의 연구대상지 보다 왕경의 범위를 더 확장하여 보았다. 그는 항공사진에 나타난 방형의 경작지 흔적을 방리의 흔적으로 보아, 그 범위는 북으로는 북천을 지나 황성공원과 백율사 사이까지, 동남으로는 사천왕사지역까지, 서남으로는 배반동까지 이르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장순용의 연구는 기존의 왕경의 지역적 범위를 넓게 잡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발굴조사 성과를 이용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閔德植은⁸⁾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기사를 근거로, 신라왕경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즉 그는 월성과 남산신성에 사용되었던 尺의 길이를 1尺29.8~30cm의 東魏尺으로 보고, 이를 왕경의 크기를 재는 기준 자료로 삼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였다. 왕경의 廣인 동서의 너비 3,018步는 5,323m이다. 왕경의 長과 廣은 57步의 차가 있어 남북이 100m쯤 긴 정방형이다. 동서 너비 5,600m는 동위척으로 16,000尺이 된다. 왕경의 면적은 31,32km²로 계산했다. 그리고 각방의 동서 너비를 東魏尺 470尺(164.5m), 남북 길이를 東魏尺 400尺(140m)로 보고 남북의 길이 3,075步(5,600m)를 각 방의 남북 길이 동위척 400尺으로 나누면 41條가 됨으로 남북 40坊이 되며 동서의 廣 3,018步(5,593m)를 각 방의 동서쪽 東魏尺 470尺(164.5m)로 나누면 35條 34坊이므로 왕경내의 坊數는 34坊×40坊 즉 1,360坊으로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三國遺事』辰韓條의 1,360坊과 정확하게 부합되며, 따라서 同 念佛師條의 360坊은 1,360坊의 誤字라 하였다.

申昌秀는⁹⁾ 신라의 왕경은 불교의 공인과 더불어 興輪寺, 分皇寺, 皇龍寺, 靈廟寺, 永興寺 등이 건축되었으며 남아있는 유적지들은 왕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찰들의 유적지를 발굴조사하는 것이 왕경의 도시계획을 밝히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굴조사에서 이들 사찰의 크기가 건축 당시에서 폐사까지 커다란 변화가 없이 그 골격

7) 張順鏞, 앞의 논문, 1976.

8) 閔德植, 앞의 논문, 1989.

9) 申昌秀, 앞의 논문, 1995.

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미 왕경 전체의 기본적인 도시계획은 이미 앞서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러한 도시계획은 통일신라시대까지 도시계획의 변화가 거의 없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신창수의 이러한 견해는 거의 지지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필자 또한 이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왕경의 중심부에 있는 사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寺址라는 한정된 자료만으로 왕경전체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확대해석한 것으로 생각된다.

吳英勳은¹⁰⁾ 慈悲麻立干 12년(469) ‘定都坊里名’이란 기록에 주목하여 이를 경주 지역이 육부체제에서 왕경의 행정조직으로 정비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법흥왕 14년 불교공인 이후 불교사원 조영 양상은 왕경의 월성 서쪽에서 월성 동북쪽을 거쳐 현재의 경주시 중심지로 도시가 형성 발전되었음을 이야기하고 본격적인 도시계획은 문무왕대에 실시되었다고 하였다.

姜鍾元은¹¹⁾ 신라왕경은 주변의 여러 소국을 복속하는 과정에서 원사로 국지역을 특정구역화 하면서 발생되었으며, 주변지역의 복속이 거의 끝나는 3세기말~4세기초에 복속지역의 수장층을 비롯한 주민들을 사로국지역에 이민시키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라왕경은 이미 수도로서의 여러 기능을 제도적으로 구비하기 전에 형성되었으며 사로 육촌에서 변화·발전하여 왕경육부로 행정구획화 되었으며 그 시기는 丙物麻立干代로 추정하였다. 신라 최초의 王城地인 金城址는 현 읍성지역과 성동동 지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이며, 왕경은 6부와 55리, 360坊으로 이루어졌으며 리와 坊은 上下개념이 아니라 리가 먼저 형성된 후에 條坊制의 실시로 인하여 坊이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왕경이 형성됨에 따라 분묘의 변화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朴方龍은¹²⁾ 도성의 성곽은 3기에 걸친 시기 변화가 있었고, 초기의 궁궐은 서남산 일대가 유력하다고 추정하였다. 왕경은 360개의 坊과 大·中·小로 나누어지는 도로가 있었고 기존에 제시된 城東洞 殿廊址와 월성 북문을 연결하는 주작대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A.D.469년의 방리명을 정했다는 기사는 사실로 인정되며 5세기대 중

10) 吳英勳, 앞의 논문, 1987.

11) 姜鍾元, 앞의논문, 1993.

12) 朴方龍, 앞의논문, 1998.

반부터 條坊制가 실시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발굴조사 성과로 볼 때 5세기 중반으로 편년되는 도로유구 및 기와건물지가 확인되지 않아 5세기 중반 조방제 실시 案을 따르기 어렵다.

李恩碩¹³⁾ 지금까지의 발굴결과를 토대로 신라왕경의 전지역이 동시에 도로로 구획된 것이 아니라 6세기 중반부터 황룡사를 중심으로 한 동서편의 중앙부 지역이 먼저 형성되고, 경주 읍성이 있는 서편 지역과 북천 북편, 월성 남편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어 8세기초에 이르러서야 條坊制가 완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金入宅’의 의미는 ‘金堂入宅’ 혹은 ‘金殿入宅’의 약칭으로, ‘개인 사찰을 가진 주택’으로 해석하고 있다. 필자도 이은석의 6C중반에 계획도시 건설, 7C후반에서 8C초반 확대설에 동조하지만 확장 방향과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필자가 주목한 것은 도로유구의 방향성과 기와건물지의 좌향, 그리고 축조시기 이다. 물론 한정된 자료만으로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나 큰 범위에서 보면 왕경의 확장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Ⅲ. 왕경의 개념과 범위

1. 왕경의 개념

왕경은 일반적으로 왕실을 비롯한 귀족들의 거주구역이자 정치활동의 중심지를 말한다. 신라인이 왕경에 대해 그들 자신이 어떻게 생각했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다. 다만 『梁書』, 新羅傳에 고신라의 왕경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其俗呼城曰健牟羅 其邑在內曰喙評 在外曰邑勒
亦中國之言郡縣也 國有六喙評 五十二邑勒

이 기록을 보면 왕궁을 健牟羅라고 하고 왕궁주위의 왕경은 6喙評 즉 6부로 구성되고 왕경 밖은 52읍록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13) 李恩碩, 앞의논문, 2004.

다. 즉 신라왕도 내에는 6부가 있고 도성 밖에는 52읍록이 있다고 한다. 『梁書』, 新羅傳의 기사 내용은 대개 6세기 전반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⁴⁾

신라인에 의해 작성된 금석문에 보이는 6부의 명칭에서 왕경이 인식되는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금석문에 보이는 6부의 명칭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금석문에 나타난 신라 6부의 명칭¹⁵⁾

비 명	건립시기	부의용례	비고
迎日冷水里碑	癸未年(503)	喙 沙喙 本彼 斯彼	
蔚珍鳳坪碑	法興王 11年(524)	喙 沙喙 本彼 新羅六部	
蔚山川前里 書石	法興王 12年(525)	沙喙 喙	
眞興王巡狩碑	眞興王 29年(568)	喙 沙喙 本彼	
南山新城碑	眞平王 13年(591)	沙喙 喙	

<표1>에서 제시한 금석문을 통해 6부의 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영일냉수리비에서 보이는 6세기 초반이다.¹⁶⁾ 6세기 초반에 6부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이전에 이미 6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울진봉평비에서 보이는 ‘新羅六部’라는 직접적인 용례가 확인되는 것을 보아도 6부는 이미 형성이 되어있었으며 6부와 함께 왕경의 개념도 형성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왕경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일까? 아마도 신라가 고총고분을 축조하기 시작하는 시기와 궤를 같이할 것 같다.

한편, 왕경의 개념 규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견해를 보면 첫째, 왕도 및 王畿의 존재가운데 한 쪽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왕경 6부가 곧 王都라는 견해와 둘째, 王京과 王畿를 별개로 구분지어 설명하는 견해로 왕경이 당시의 정치·문화의 중심지이며, 왕족을 비롯한 귀족의 생활중심지라고 한

14) 金昌鎬, 「古新羅의 都城制 문제」, 『新羅王京研究』,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第16輯, 1995.

15) 尹光鎭, 「新羅王京研究의 一考察」, 慶州大學校大學院 文化財學科碩士學位論文, 1999. 인용

16) 영일냉수리비의 연대에 대해서는 443년 설과 503년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김창호는 그보다 앞선 383년설을 제시한 바 있다. 金昌鎬, 「迎日冷水里新羅碑의 建立 年代」

다면 왕기지역은 군사적·경제적인 역할이 컸던 지역으로 보기도 한다. 셋째, 왕경은 왕도와 왕기로 구성되었으며 왕도가 왕경안에 있던 신라의 수도로서 국가통치를 위한 중앙정부조직과 왕을 포함한 중앙의 지배세력들이 거주하던 중심지라고 한다면, 왕도밖의 지역은 京畿 즉 王畿라는 것이다.¹⁷⁾ 왕경의 개념규정에서 필자는 두 번째 견해인 왕경이 당시의 정치·문화의 중심지이며, 왕족을 비롯한 귀족의 생활중심지이고 王畿지역은 군사적·경제적인 역할이 컸던 지역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유적을 살펴보면 신라왕경이라고 판단되는 현재의 경주시가지를 중심으로 궁궐과 도로유구, 그리고 귀족의 주거지로 판단되는 다수의 기와건물지¹⁸⁾가 확인되고 있는 반면 왕경의 외곽지역으로 생각되는 곳에는 도로유구등의 유적이 확인된 바 없고 대규모의 생산유적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왕경에서 벗어난 곳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2. 왕경의 범위

신라왕경은 성립기의 왕경과 확장기의 왕경범위를 고찰해 나가는 것이 순서이겠으나 필자는 선학들의 연구성과와 발굴자료를 토대로 우선 왕경의 범위를 설정한다음 그 범위 내에서 성립과 확장의 시기와 확장방향 등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다.

왕경의 범위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동쪽으로는 가장 넓은 범위를 보인 것이 藤島亥治郎의 견해로 보문사지 동쪽까지로 추정하고 있으며 서쪽은 서천을 경계로 서악동 일대는 조방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어서 서천까지로 추정하고 있다.¹⁹⁾ 남쪽으로는 월성 남쪽, 즉 문천 남쪽 지역인 남산 북쪽까지로 추정하고 있으며 북쪽은 가장 넓은 범위를 보인 것이 황성공원과 용강동 일대까지로 추정하고 있다. 동남쪽은 망덕사지까지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듯 하며 남서쪽은 나정으로 생각하는 쪽과 배리까지로 생각하는 견해로 나뉜다. 이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17) 姜鍾元, 「新羅 王京의 形成過程」, 忠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93.

18) 여기에서 기와건물지는 궁궐과 사찰, 건물지 등 지붕의 재료로 기와를 사용한 모든 건축물을 말하며 기와를 지붕재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19) 대부분의 연구자가 서쪽의 경계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표 2> 왕경 규모·범위 연구 집성표²⁰⁾

		藤田元春	藤島亥治郎	齊藤忠	尹武炳	張順鏞	閔德植	金秉模
방리 규모	동서	400東魏尺	400東魏尺	504曲尺 (152m)	460東魏尺 (160m)	-	400東魏尺 (140m)	460東魏尺 (160m)
	남북	400東魏尺	400東魏尺	468曲尺 (142m)	400東魏尺	-	470東魏尺 (164.5m)	400東魏尺 (140m)
坊數		-	-	-	36	-	1,360	360
왕경 범위	동	-	보문사지	서천 남천 북천 남산 금강산 명활산 안쪽	황복사지 동쪽250m	孝恭王陵	보문동	孝恭王陵
	서	-	서천		서천	서천	서천	서천
	남	-	남천		남천	남산북쪽	남산북쪽	남산북쪽
	북	-	북천		북천	백율사	백율사	황성공원
	동남	-	망덕사지 남쪽까지		선덕왕릉 북쪽	망덕사지 남쪽까지	망덕사지 남쪽까지	망덕사지 남쪽까지
	서남	-	나정까지		오릉	배리삼릉	나정	배리
1尺 단위		東魏尺 (35.5cm)	東魏尺 (35.5cm)	曲尺 (30.3cm)	周尺 (19.91cm) (방의크기: 동위척)		唐尺	東魏尺 (35.5cm)

이러한 선학들의 연구성과와 발굴자료를 검토한 결과 필자는 동으로는 낭산 일대, 서쪽으로는 서천까지 남쪽은 포석정, 북쪽은 용강동 일대로 현재의 경주시가지와 거의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IV. 도로유구와 기와건물지

1. 도로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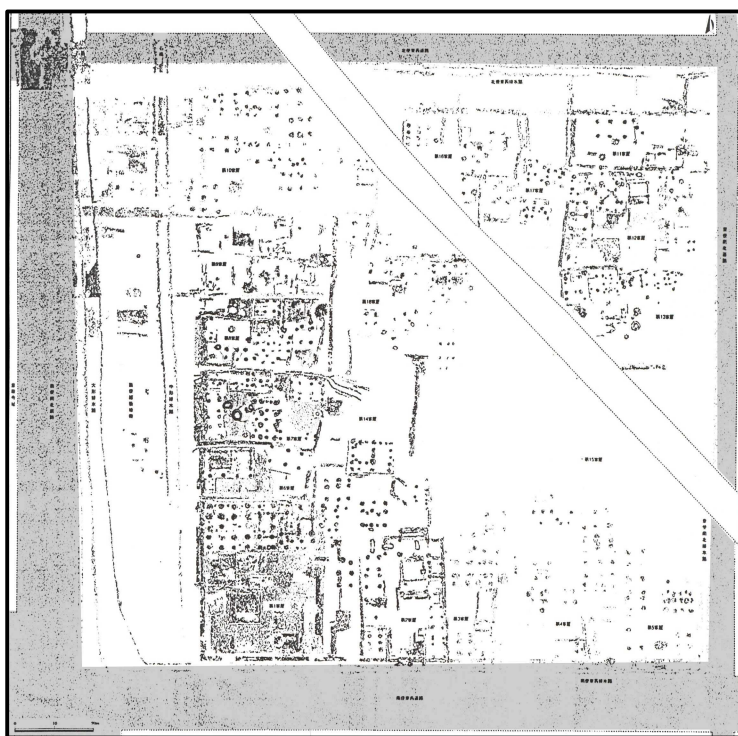
신라왕경의 방의 크기와 수에 대한 접근은 도로유구의 확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경주에서 발굴조사된 도로유구는 구획도로²¹⁾와 구획내 도로²²⁾, 그리고 교량지²³⁾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최초 도로유구

20) 禹成勳, 「新羅王京 慶州의 都市計劃에 關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碩士學位論文, 1996.에서 인용.

21) 지금까지 조사된 대부분의 도로가 여기에 속한다.

의 노출은 왕경의 동쪽부분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서쪽부분의 조사예도 증가하고, 북천 이북의 도로유구 조사예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도로유구는 도로유구로 추정되는 곳 까지 포함하면 20여 곳에서 확인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축조연대가 확실하거나 도로의 중심축선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유구의 잔존상태가 양호한 곳을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1) 九皇洞 皇龍寺址 東便 王京遺蹟²⁴⁾



<도 1> 황룡사지 동편 新羅坊

(출처: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新羅王京』, 2002. 별지도면)

경주시 구황동 417번지 일대에 위치한 황룡사지 동편 왕경유적은 월성,

22) 대표적인 유적으로 황룡사 전시관부지 유적에서 조사된 동서도로와 황성초등학교강당부지유적에서 조사된 남북도로, 그리고 최근 조사된 동천동 공동주택부지에서 조사된 소로가 있다.

23) 경주에서 조사된 일정교 월정교는 도로의 연속선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4)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新羅王京』, 2002.

안압지, 분황사 등 왕경내 주요 건축물과 인접해 있고 황룡사지와 연접해 있어 신라왕경 가 운데에서도 중심부에 속해 있다.

여기에서는 井字形으로 설치된 동서 및 남북도로와 부속 배수로, 도로에 의해 口字形으로 구획된 택지, 택지의 사방 경계를 이루는 석축, 방담, 택지 내부에 정연하게 배치된 18개 가옥의 건물지, 우물, 석조유구, 소형 담장, 택지 내부로 통하는 단거리 소형도로 등이 확인 조사되었다.

택지의 내부에서는 골목길로 보이는 소형 도로가 있을 뿐 내부공간을 별도로 분할할 만한 도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도로를 비롯한 측구, 방담 등 방향성을 갖고 있는 유구의 조영방위는 현재의 자북방향과 일치한다.

(2) 仁王洞 556番地 遺蹟²⁵⁾

이 유적은 선덕여자중고등학교의 교사를 증축하기 위하여 1998년 3월부터 동년 5월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발굴조사 되었다. 이 유적에는 동서도로와 남북 도로가 조사되었는데 동서 도로는 상층도로와 하층도로로 나누어진다. 먼저 하층도로는 노면의 두께가 10~15cm이며 잔자갈이 조밀하게 깔려있었다. 도로내부토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으나 도로와 같은 층위상에 있는 유구내에서 고배편과 통쪽와통으로 제작된 평와가 다수 출토되었다.

상층도로는 노면의 두께가 10~15cm이며 도로의 폭은 8.2m이상이다. 상층도로는 지름 10cm 내외의 비교적 큰 자갈과 기와편을 다량으로 깔아 다진 것으로 하층도로와는 축조방법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상층도로는 하층도로의 노면위에 사질점토와 함께 자갈을 채웠으며, 부분적으로는 하층도로위에 평기와를 그대로 깔아 다져서 이용하였다. 상층도로의 노면상부에서 당초문박공와와 평기와가 출토되었다.

남북도로역시 상층도로와 하층도로로 나누어지는데 하층도로는 소로로 폭 35cm정도의 측구를 갖추고 있으며 노면의 폭은 3.3m정도이다. 노면의 두께는 13~15cm 정도이며 잔자갈이 조밀하게 깔려있다. 하층도로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편이 소량 확인되었는데 보고자에 따르면 6세기 초반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25)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 仁旺洞 556 566番地遺蹟 發掘調查報告書』, 2003.

상층도로는 노면의 두께가 25~30cm이며 폭은 10.2m이다. 축조방법은 지름 10cm 내외의 비교적 큰 자갈을 다량으로 깔아 다진 것으로 동서도로와 같은 축조방법을 보이고 있다. 상층도로는 하층도로의 노면 위에 두껍게 자갈을 깔아 다져서 새롭게 축조하였다.

(3) 慶州 西部洞 19番地 遺蹟²⁶⁾

1997년 7월부터 동년 11월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조사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이 확인되었다. 남-북도로유구는 장축방향이 자북에서 7°정도 동쪽으로 기울어지며, 도로의 서쪽 단부에는 측구로 여겨지는 단면 V자 형태의 흑회색 부식토



층이 확인되었다. 도로의 폭은 12.5m로 확인된 총 길이는 130m에 이른다. 도로는 잔자갈과 갈색사질 점토를 사용하여 축조하였는데, 층위상으로 볼 때 3차 이상 개축되었다고 한다.

동서도로는 폭은 약 4m, 길이는 약 150m에 이르며, 남북도로와 90°로 직교한다. 동서도로의 남편으로 석축배수시설이 도로와 접하여 축조되어 있으나 북편에는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동서도로 역시 남북도로와 마찬가지로 3차 이상 개축되었다고 한다. 도로유구의 아래층에서는 7~8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토기편을 포함하는 수혈

<도 2>서부동 19번지 도로 유적 도로유구유구가 확인되었으며, 내부토층에 배치도는 주로 통일신라시대의 토기편이 출토되었고, 상부의 교란층에서는 잔자갈들과 함께 조선시대의 자

26)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 西部洞 19番地 遺蹟 發掘調査報告書』, 2003.

기편과 고려시대의 자기편도 출토되었다.

(4) 慶州 龍江洞 苑池遺蹟²⁷⁾

인공섬의 서쪽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서안석축과 나란히 남북방향으로 진행하다 남안석축에서 꺾이고 있다. 노면은 모래와 황갈색점토를 섞어 다졌고 자갈의 크기는 5cm내외이다. 도로의 동쪽 가장자리에는 얇은 수혈을 파고 20~30cm 크기의 천석 또는 할석을 이용해 채우고는 그 위에 황갈색점토를 전면적으로 깔아 다졌다. 도로의 규모는 폭이 약 5.2m 내외이며, 도로의 배수시설로 생각되는 구는 62.4m 정도 확인되었는데, 북쪽 경계면 밖으로 계속 연결된다. 도로유구내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으나 원지의 호안석축과 바닥등에서 출토한 인화문토기편등을 근거로 할 때 유적의 상한연대는 7C후반 이며 중심연대는 8C로 추정되고있다.

(5) 慶州 北門路 王京遺蹟²⁸⁾

이 유적에서는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확인되었다. 동서도로는 조사된 직선길이가 79m에 달한다. 축조방법에 있어서는 기존 경주시내지역에서 확인된 왕경도로유구와 매우 흡사한데 기본적으로 기반층인 명적갈색 내지 암적갈색 자연점토층에 다량의 잔자갈을 깔아 채워 다짐처리한 뒤 그 상부에 마사토나 황·적갈색 점토, 소토 등으로 노면을 마무리 하였다. 동서도로 축조의 기본 방향축은 동서담장 2호의동서축을 기준으로 할 때 N80~81°W이며 동(자북기준)에서 9~10°가량 남쪽으로 기울었다. 동서도로 확인구역내에 설치된 토층을 검토해 보면 대체로 4차에 의해 도로면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각 해당 도로면의 사용시기는 크게 보면 1~3차 도로층은 통일신라시대로 판단하며, 4차 도로층은 고려, 조선시대로 판단하고 있다.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남북도로유구는 시굴트렌치에서 남북 장축으로 14.4m정도가 확인되었고, 도로유구의 서편 측면에는 남북담장과 연결되어 있다. 남북도로의 축조방법은 동서도로유구와 거의 유사한데 최하부 1차 도로는 자연역석층을 기반층으로 하여 그 상부에 직경 8~12cm정도의 천석과 3~6cm정도 크기에 달하는 다량의 잔자갈을 매우 조밀하게 깔아 다

27) 영남문화재연구원, 『慶州龍江洞苑池遺蹟』, 2001.

28)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州 北門路 王京遺蹟 試 發掘調查報告書』,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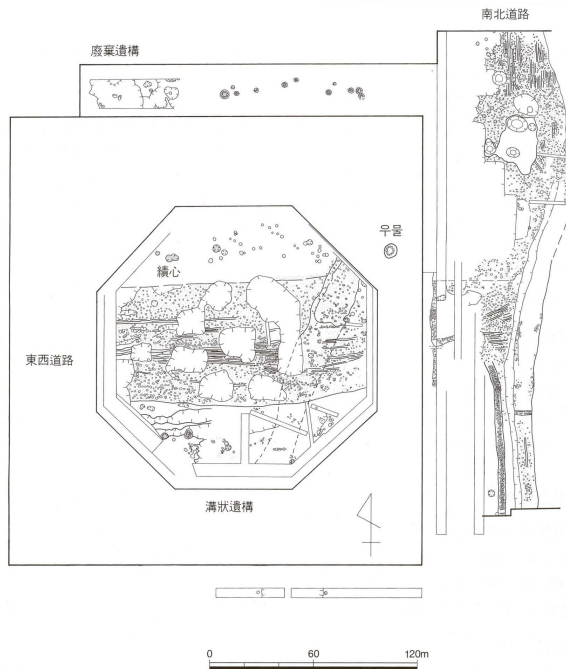
짐처리를 하여 기초부를 형성하였고, 다시 그 기초부 상부면에 암적갈색 점토와 마사토, 소토 등으로 노면을 완성하였다. 상부 2차·3차 도로층은 대체로 1차 도로층에 구성하는 잔자갈에 비해 다소 큰 잔자갈과 모래, 점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남북도로유구의 폭은 단면 토층상에서 1차·2차 도로의 폭이 7.6~8m로 확인되었고, 3차 도로면은 남북담장의 동편석열을 기준으로 동편 7m부분까지 도로의 잔자갈 다짐처리가 마감되어 나타났다. 남죽도로의 축조 기본축은 남북담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N8~9°E로 동서도로와 거의 동일하게 직교한다.

(6) 國立慶州博物館敷地內 遺蹟²⁹⁾

경주시 인왕동 76번지와 구황동 614, 617-1번지 일대의 국립경주박물관 전시 및 수장고 건립부지내 유적은 월성의 동쪽에 연접한 경주박물관 내부에 위치한다. 국립경주박물관에 의해 1998년과 2000년에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여기에서 도로유구 3개소와 담장, 우물, 폐기유구 등과 함께 다수의 건물지가 확인 조사되었다. 도로유구는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확인·조사 되었다.

동서도로는 길이 약 33m, 폭 15~16m 정도 확인되었다. 도로는 황갈색의 기반암 위에 2개의 층으로 확인되는데 3~5cm 정도의 잔자갈을 조밀하게 깔 하층과 그 바로 윗면에 10~20cm의 넷돌을 깔 상층으로 나누어진다. 잔자갈층의 윗면은 고른편이나 넷돌로 이루어진 상층은 고르지 못한 편이다. 상하 2개층의 도로는 층위상으로 간층없이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아 축조시기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기반시설로서의 축조공법상의 문제로 보고있다. 노면 위에는 수레바퀴 흔적으로 추정되는 여러 줄의 흠 자국들은 동서 방향으로 잘 남아 있으며, 바퀴간의 폭은 대략 110cm 정도이다.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추정되는 부분에서 동서도로에서 바라 볼 때 북쪽으로 곡선처럼 휘어진 바퀴자국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남북도로는 길이가 30m정도 조사되었으며 확인된 최대 폭은 23.7m정도이다. 남북도로의 노면 레벨은 전체적으로 일정하지 않으며, 상하 2개층의 노면이 조사되었다. 하층은 적갈색의 흙과 5cm가량의 잔자갈을 조밀하게 깔았으며, 상층 노면은 10cm가량의 넷돌을 깔았다. 노

29) 國立慶州博物館, 『國立慶州博物館敷地內 發掘調査報告書』, 2002.



면에는 도로 진행방향을 나타내는 수레바퀴의 흔적이 여러 줄 나타나는데, 양 바퀴의 폭은 110cm가량이다. 이 유적에서 확인된 남북도로는 현재의 자북방향과 동일하며 동서도로는 남북도로와 직교한다.

(7) 王京地區內 가스관 埋設地 遺蹟³⁰⁾

1996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해 구황교 사거리에서 배반지하도까지의 가스관 매설부지에 대해서만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도 3> 경주박물관부지내 유적 유구배치도 (출처: 國立慶州博物館, 『國立慶州博物館敷地內담장 석열과 담장외곽을 따發掘調査報告書』, 2002. p. 16)

조사결과 라 평행으로 연결된 도로유구의 흔적이 발굴조사지역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밖에도 건물지, 석축 우물, 요지, 와무지, 배수로, 성격불명의 석군 등 다수의 유구가 노출되었다. 도로유구는 발굴조사구역의 거의 전 구간에 걸쳐 확인되었는데 확인된 도로의 길이는 1,010m에 달한다. 이 유적에서는 가스관 매설지역에 한정하여 탐색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도로의 폭과 남북방향으로 연결된 각 구획 사이의 경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탐색조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도로의 폭은 7.6m가 확인 되었다. 도로유구는 수차례에 걸쳐 증·개축되었으나 교란이 심해 정확한 횡수는 알 수 없다. 남북도로의 방향은 현재의 자북방향과 일치한다.

(8) 皇龍寺址 展示館 建立敷地內 遺蹟³¹⁾

30)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王京地區內 가스관 埋設地 發掘調査報告書』, 1996.
 31)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 九黃洞 皇龍寺址 展示館 建立敷地內 遺蹟 3次 發掘調査 指導委員會 資料」 2004.

이 유적은 1999년부터 5년여에 걸쳐 발굴조사되었으며 건물지와 배수로, 도로, 육각형유구 원지 등이 조사된 유적이다. 여기에서는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확인되었는데 동서도로는 노퍽이나 진행방향, 측구의 부존 등으로 보아 방리제에 의한 도로보다는 대규모 공사등을 위한 임시도로일 가능성이 크다. 남북도로는 너비 11m정도 확인되었으며 길이는 30m정도 확인되었다. 도로의 남쪽으로는 유적경계선 밖으로 이어져 신라왕경유적 발굴조사현장의 동편 남북도로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노면은 매우 고르게 다져진 상태로 1~10cm의 잔자갈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고 도로기층부 아래에는 잔자갈과 점토가 혼재되는 판축의 흔적을 보이고 있다.

(9) 月城垓字 도로유구³²⁾

1988년 발굴조사되어 복원 정비되어 있는 석교의 북편에서 노출된 유구로, 황갈색의 모래자갈층위에 3~5cm내외 크기의 잔자갈을 깔고 상면을 다진 점 등이 황룡사지 동남편 외곽 지역에서 조사된 도로유구와 축조상태가 유사하다. 확인된 도로는 남북도로이며 폭은 9m이고 길이는 35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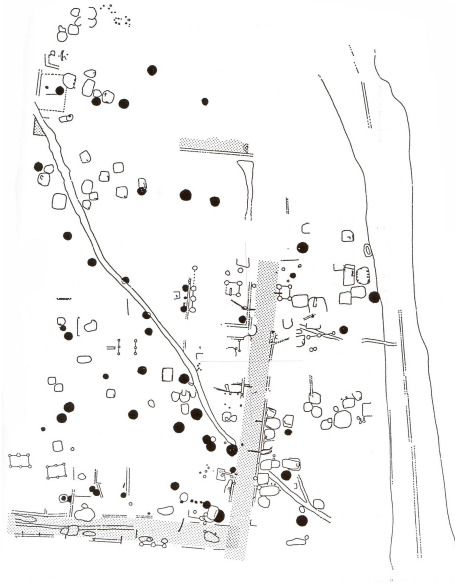
(10) 慶州市 東川洞 7B/L 遺蹟³³⁾

1997년부터 1998년 까지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도로유구와 담장, 우물 등이 조사되었다. 이곳에서는 남북도로 1개소와 동서도로 2개소가 확인되었는데 이 유적과 인접한 우방지구에서도 남북도로가 1개소가 확인되었으므로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 본다면, 경주중심부에서 외곽에 해당하는 동천동 일대의 한 坊의 규모가 추정가능하다. 즉 도로간의 중심거리를 보면 남북방향 도로간의 거리는 약 160m, 동서방향 도로간의 거리는 약 125m로서 동서방향 도로간 즉 남북의 폭이 약간 좁게 나타나고 있다. 각 도로들은 양측의 담장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6.5m 정도로 비슷한 도로 폭을 보이는데, 위치에 따라서는 7~8m에 가까운 것도 있다. 남북도로는 N-8°-E로서 우방지구의 남북방로와 거의 같으며, 동서도로는 이 남북도로에서 직각으로 격여지고 있다.

32) 慶州文化財研究所, 『年報』 第 4 號, 1993.

33)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王京遺蹟Ⅲ』 -慶州市 東川洞 791 7B/L 遺蹟-, 2005.

도로의 축조방법은 1차도로는 기반층에 잔자갈을 꼼꼼하게 깔아 다졌으며 2차도로는 도로 중앙부에 폭 80~100cm 정도의 잔자갈을 엉성하게 깔고, 그 주위를 마사토와 마사가 섞인 점토 등을 관측공정과 유사하게 순차적으로 겹쳐 다지고 있다. 특히 경주 중심부에서 보이는 도로 양측에 側溝를 마련한 것 대신 도로 중앙부에 도로 전체의 배수시설을 마련한 것이 유적에서 보이는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도 4> 동천동 유적 유구배치도
(출처: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王京遺蹟Ⅲ』-慶州市東川洞 791 7B/L 遺蹟-, 2005. p. 129)

로 인근 공사부분에서도 교란되기는 하였지만 동천동유적에서 확인된 남북·동서도로의 1차 도로에 상응하는 잔자갈을 탄탄히 다진 도로면이 확인되었다. 단면조사결과 2차도로의 중앙부에서 폭 80~100cm 정도의 잔자갈을 불규칙하게 깔고, 그 주위를 마사토와 마사가 섞인 점토 등을 관측 기법으로 섞어다진 배수시설이 확인되었다.

(11)皇城初等學校 講堂敷地 遺蹟³⁴⁾

이 유적에서는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확인되었는데 동서도로는 구획도로인데 반해 남북도로는 구획내 도로로 확인되었다. 동서도로는 동천동 681-1번지 유적에서 확인된 동서도로와 연결되는 폭 6.5m의 도로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조사구역의 동편 신도로

(12)皇城洞 950-1·7番地 遺蹟³⁵⁾

2002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남북도로유구가 확인되었다. 최대폭이 10.9m, 확인된 길이는 19m 정도이다. 도로의 진행방향은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는데 남동쪽은 후대의 삭평과 교란으로 이미 소실된 양상이고, 북

34)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王京遺蹟Ⅰ』-황성초등학교 강당부지-, 2002.

35)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州 隍城洞 950-1 7番地 共同住宅 新築敷地 發掘調査 報告書』, 2005.

쪽은 도로가 계속 진행되고 잇는 것으로 판단되나 발굴 외 지역이라 더 이상 확인이 불가능 하였다. 여기에서는 도로와 관련된 담장시설, 측구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기존 경주 시내에서 조사된 도로유구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유적에서 확인된 도로유구는 기존에 조사된 바 있는 직선적인 남북도로와는 달리 약간의 굴곡이 있는 곡선적인 방향성을 가지는데 도로유구의 장축이 남쪽부분에서는 북동-남서축으로 가다가 북쪽부분에서는 남-북축으로 꺾이는 양상이다. 도로의 축조방법은 크고 작은 자갈과 천석, 갈색 사질점토 등을 이용하여 판축하거나 다져서 그 해당 노면을 조성하였다.

(13) 芬皇寺 하층 도로³⁶⁾

분황사 석탑에서 남쪽 약 60m 지점에서 도로 유구가 동서 방향으로 길게 50m가량 확인되었다. 직경 5cm 안팎의 밤자갈을 이용하여 윗면을 평평하게 다진 도로 基層部에 해당하는 석군으로서 그 표면은 양호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교란이 심하여 정확한 路幅과 側溝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단면조사 결과, 자갈섞인 모래, 황갈색 사질점토 등의 퇴적층 위에 암갈색 점토층을 5~10cm 두께로 판축하고 그 위로는 갈색 점질토와 밤자갈을 섞어 10cm 내외의 두께로 덮고 윗면을 평평하게 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로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그 너비는 최소한 9m 이상이다. 도로의 방향은 분황사의 동서축과 맞지 않으며 E8°S로 조방제에 의하여 격자형으로 설치된 황룡사주변의 신라왕경 도시유적의 도로방향과는 차이가 있다. 분황사 석탑과 당간지주의 배치상태 등으로 볼 때, 이 도로가 노출된 위치는 분황사 가람내에 해당되므로 도로와 분황사 가람과는 공존할 수 없다. 여러 정황상, 이 도로는 분황사는 물론이고 도시유적의 격자형 도로, 방형 기초석군과 관련된 시설물 등에 비하여 앞선 시기의 유구로 판단된다고 한다.

(14) 南古壘 하층 도로³⁷⁾

남고루는 전랑지 서단부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것으로 1.5m높이의

36)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分皇寺』發掘調査報告書 I, 2005.

37)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殿廊址 南古壘』發掘調査報告書, 1995.

토루가 남북으로 길게 남아 있는 곳이다. 1993년 경주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결과 토루의 기저부와 토루 동쪽편에 물웅덩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³⁸⁾ 여기에 더하여 남고루 유구 하층에서 도로유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도로유구는 황룡사지 동편 외곽의 왕경유구 발굴조사에서 노출된 바 있는 도로유구와 같은 성격으로 밝혀졌다. 도로의 원래 넓이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도로유구의 넓이는 최소한 13.4m 이상이라고 한다. 이 도로유구는 남북 방향으로 현재의 자북과 일치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도로유구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경주지역에서 조사된 도로유구³⁹⁾

연번	유적명	도로방향	규모(m)		부속시설	축조 방법	방위
			길이	폭			
1	황룡사지 동편	남편 동-서	160	15	석축 배수로	3~5cm정도의 자갈과 마사토, 적색모래 등으로 다짐	남북도로와 직교
		북편 동-서	160	7.5	석축 배수로	3~15cm의 자갈을 전면에 깔았음	남북도로와 직교
		동편 남-북	150	5.5	석축 배수로	직경 5cm내외의 자갈과 사질토를 섞어 노면을 다짐.	자북과 일치
		서편 남-북	150	12	석축 배수로	자갈과 사질토를 깔았음.	자북과 일치
2	황룡사지 전시관 건립부지 내 유적	동-서	(28)	10	-	1~10cm의 잔자갈을 빈틈없이 채움	남북도로와 직교
		남-북	(30)	(11)	-		N-1°-E
3	월성해자	남-북	(35)	9	석축 배수로	3~5cm의 잔자갈을 깔고 상면을 다짐	자북과 일치
4	국립경주 박물관	동-서	(33)	15		잔자갈을 조밀하게 깎 하층과 10~20cm의 넷돌을	남북도로와 직교

38) 여기에서 남고루의 성격에 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왕경의 북쪽방향으로 확장에 있어 가장 큰 제약이자 자연의 도전은 바로 북천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남고루가 성곽으로 생각하였으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남고루는 홍수 방지를 위한 제방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姜奉遠, 「경주 南古壘에 관한 일고찰」, 『新羅文化』 第27輯, 2006.

39) 여기에 제시된 표는 張容碩, 「新羅 道路의 構造와 性格」, 『嶺南考古學』 38, 2006. 에서 인용하되 방위는 발굴보고서의 도면을 기준으로 필자가 직접 계측하였다.

	부지내 유적	남-북	(30)	23.5		간 상층으로 나누어짐 흙과 자갈을 평탄화 시킨다음 그 위에 도로 설치	자북과 일치
5	인왕동 556 566 번지 유적	동-서	(23)	(8.2)		하층도로는 생토층을 굴광한 뒤 사질토를 채운후 잔자갈을 깔았음. 상층도로는 비교적 큰 자갈과 기와를 다량으로 깔았음	남북도로와 직교
		남-북		10.2	측구	암갈색 점사질토를 채워다진 후 잔자갈을 깔았음	자북과 일치
6	왕경지구 내가스관 매설지 유적	남-북	1,010	-	측구	밤자갈로 단단하게 다짐	자북과 일치
7	남고루 하층도로	남-북	-	13.4	-	황룡사지 주변 도로유구와 같음	자북과 일치
8	경주 서부동 19번지 유적	동-서	150	4	석축배수로	잔자갈을 정연하게 깔았음	남북도로와 직교
		남-북	130	12.5	측구		N-7°-E
9	경주 북문로 왕경유적	동-서	(79)	(4)	측구	잔자갈과 마사토, 점토 등을 이용해 판축하거나 다짐	남북도로와 직교
		남-북	(14)	8	-		N-8°-E
10	성건동 342-17 번지 유적	남-북	(13)	(3.4)	-	2~5cm의 잔자갈이 10cm두께로 깔려있음	(N-10°-W)
11	동천동 7B/L 유적	남-북	88		배수시설	잔자갈과 자갈, 점사질토를 섞어서 다짐	N-8°-E
		남편 동-서	75		배수시설		남북도로와 직교
		북편 동-서	23	6	-		남북도로와 직교
12	황성초등학교 강당부지 내 유적	동-서	30	6.5	측구	자갈과 마사토를 섞어 다짐	N-8°-E
		남-북	-	3.5	-		N-3°-E
13	황성동	남-북	19	10.	-	잔자갈과 천석, 사질점토를	N-11°-E

	950-1 7 번지 유적			9		이용해 판축 혹은 다짐	(굴곡)
14	용강동 원지유적	남-북	62	5.2	배수시설	모래와 황갈색 점토, 자갈을 섞어 다짐	정북 (굴곡)
15	분황사 하층도로	동-서	50	(9)	-	암갈색 점토를 판축후 점질토와 밤자갈을 다짐	E-8°-S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도로유구가운데 층위적으로 가장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이 분황사 하층에서 노출된 도로유구이다. 이 도로는 분황사가 창건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것으로 분황사의 창건연대가 634년임을 감안할 때 그 이전에 도로유구가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자료가 된다. 이 도로유구는 도로의 축이 E-8°-S인데 이 방향은 서부동 19번지 유적이나 동천동 유적에서 조사된 동서도로와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사된 면적이 매우 협소하고 도로의 폭과 축구의 유무 등을 확인하지 못해 조방제에 의한 도로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도로의 구조와 축조방법에서는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며 路幅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⁴⁰⁾ 이는 시기차를 반영 한다기 보다는 교통량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路幅과 함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도로의 진행방향이다. 즉 황룡사 동편 유적과 황룡사지 전서관부지 유적, 인왕동 유적 등 황룡사 주변에서 확인된 도로는 남북도로가 자북과 일치하는 반면, 서부동 19번지 유적과, 북문로 유적, 동천동 유적 등 황룡사지와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도로는 자북에서 7~8°정도 동쪽으로 기울어진 방향을 보인다. 이렇게 도로의 중심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藤島亥治郎의 지적과 같이 도시계획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번에 걸쳐 진행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기와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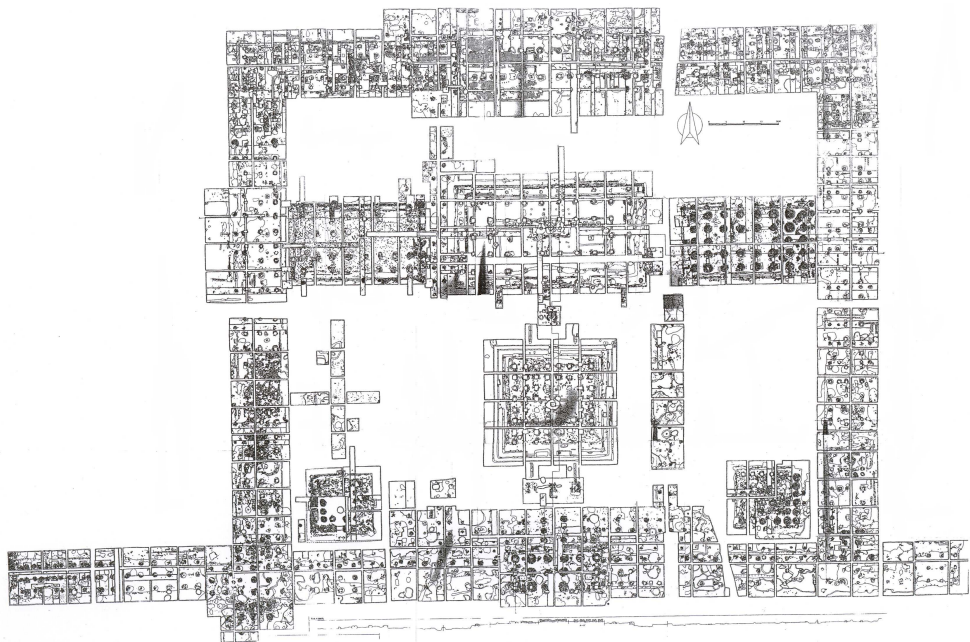
신라왕경의 확장에 있어 기와건물지의 파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와는 일반백성이 사용할 수 없는 귀족들만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다.⁴¹⁾ 따라서 기와건물지의 분포범위와 조성연대를 파악하면 왕경의 범위

40) 박방룡은 도로의 폭을 小路 中路 大路로 나누었다.

와 확장시기를 알 수 있다. 조사된 기와건물지 가운데 왕경의 확장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되는 유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황룡사지⁴²⁾

553년(신라 진흥왕 14)에 창건하기 시작하여 566년에 주요 전당들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에 모든 건물이 완공된 것은 아닌 듯하다. 금당(金堂)은 584년(진평왕 6)에 비로소 완성되었고, 신라 삼보(三寶)의 하나인 9층목탑은 643년(선덕여왕 12)에 착공되어 그 다음해에 완공된 사실이 『三國史記』에 기록되어 있다.



<도 5> 황룡사지 중심곽 유구현황도

(출처: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龍寺』發掘調査報告書 I, 1984. 별지도면)

이 절은 신라 월성(月城) 동쪽에 있었는데, 그 창건 기록에는 진흥왕이 신궁을 월성 동쪽 낮은 지대에 건립하려 했으나 그곳에서 황룡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왕이 신궁 조영을 중지하고 절로 만들게 하여 황룡사라

41) 삼국사기를 기록을 보면 기와의 사용에도 신분별로 엄격한 제한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三國史記』卷 33 雜志 第 2 屋舍 條.

42)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龍寺』發掘調査報告書 I,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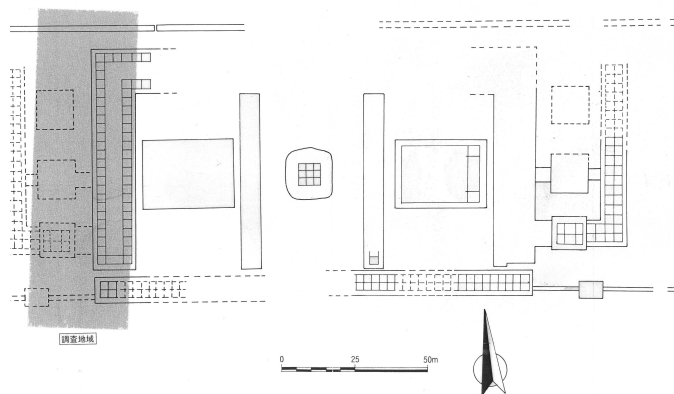
는 사명(寺名)을 내렸다고 한다. 국가적인 사찰이었기 때문에 역대 국왕의 거동이 잦았고 신라 국찰 중 제일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신라 멸망 후에도 황룡사는 고려 왕조에 이어져 깊은 숭상과 보호를 받았으며 9층목탑의 보수를 위해 목재까지 제공받았다. 그러나 1238년(고종 25) 몽골군의 침입으로 탑은 물론 일체의 건물이 불타버렸다.

1973년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경주고적발굴조사단에서 발굴 조사를 시작하여 1983년까지 조사가 실시되었다. 발굴조사결과 4번에 걸쳐 가람배치의 변화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수많은 양의 토기와 신라~고려시대에 걸친 다량의 기와가 출토하였으며 그 외에 금동불상과 금제합, 청동역사상등 많은 유물이 출토하였다. 특히 비록 도굴품이기는하나 사리의함에 새겨진 황룡사 찰주본기는 황룡사탑 뿐만 아니라 신라의 사료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2)성동동 殿廊址⁴³⁾

殿廊址는 1937년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한 북천 호안공사중 유구가 발견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조사 지역은 약 2,000평 규모 였는데 殿堂址6·長廊址6·門址2 이외, 담장지 3개와 우물터 1개소가 확인되었다.



<도 6> 전랑지 추정배치도

(출처: 慶州文化財研究所, 『殿廊址 南古壘 發掘調査報告書』, 1995. p. 275)

43) 慶州文化財研究所, 『殿廊址 南古壘 發掘調査報告書』, 1995.

(3)나정⁴⁴⁾

나정은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의 탄강전설이 깃든 우물지로 전해지는 곳으로, 일대는 낮은 평지성 구릉을 형성하고 있다. 나정 일대는 남산의 서쪽자락으로 오름을 비롯하여, 남간사지, 창림사지, 금광사지 등 수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사진 1> 나정 팔각건물지 전경

(출처: 중앙문화재연구원, 『慶州 蘿井』-神話에서 歷史로-, 2005. p. 27)

발굴조사결과 우물지와 원형건물지, 팔각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팔각건물지는 평면 팔각형으로 기단 한 변이 8m 내외로, 동-서·남-북 길이가 약 20m이며, 중앙에서 확인된 수혈을 중심으로 사방 약 10m이며, 건물지의 내부 면적은 300.27m²이다. 출토유물로는 연화문 수막새와 ‘儀鳳四年皆土’銘 평기와와 각종 토기류와 와전류가 다량으로 출토하였다.

44) 이문형, 「慶州 蘿井(史蹟 第245號) 發掘調査 概要, 『慶州 蘿井』-神話에서 歷史로-, 제 1회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대회, 2005.



<사진 2> 나정 출토 ‘儀鳳四年’명
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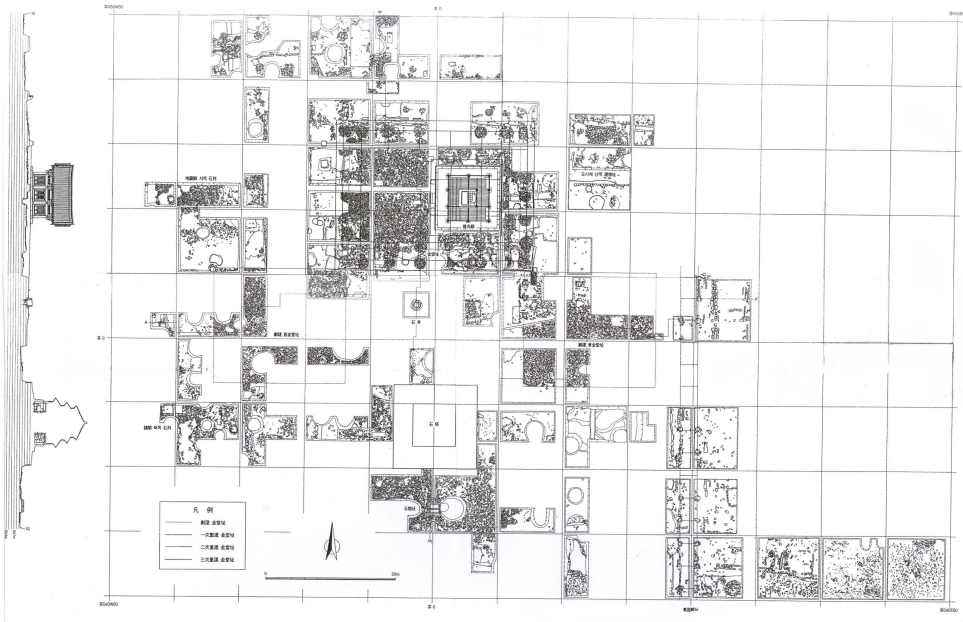
<사진 3> 안압지 출토
‘儀鳳四年’명 기와

(출처: 중앙문화재연구원, 『慶州 蘿井』-神話에서 歷史로-, 2005. p. 32)

(4)분 황사⁴⁵⁾

芬皇寺는 신라 선덕왕 3년(634)에 창건된 이래 지금까지 범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1990년 발굴조사 이전까지는 창건당시의 규모는 물론이고 가람배치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사찰이었다. 분황사 발굴조사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7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분황사의 금당은 창건이후 최소 3차례 이상의 변천과정을 거쳤음이 확인되었다. 창건 가람은 석탑을 남쪽 중앙에 배치하고 그 북쪽에 남향의 삼금당을 ‘品’자형으로 배치한 1탑3금당식이었으며, 일차 중건 시에는 창건 3금당이 모두 폐기된 상태에서 창건 중금당지를 확장하여 1동의 대형 금당으로 통합한 1탑1금당식으로 바뀌었다. 2차중건 금당은 1차중건 금당에 비하여 그 면적이 1/5로 축소되고 건물의 방향도 이전까지의 남향이 아닌 서향으로 바뀌었으며, 현존 보광전인 3차중건 금당은 2차중건 금당처럼 서향으로 중건되었으나 그 면적은 2차 중건 금당 대비 1/3로 다시 축소되었다. 즉, 창건이후 1차중건까지는 석탑과 금당의 남북중심선이 일치하는 평지가람의 정형성을 유지하면서 대형 금당을 남향으로 배치하였으나 이차중건 이후의 금당은 평지가람의 정형성을 이탈하면서 그 규모도 급격히 축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5)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芬皇寺』, 發掘調查報告書 I, 2005.



<도 7> 분황사 금당 배치도

(출처: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芬皇寺』, 發掘調査報告書 I, 2005. 별지도면)

V. 신라왕경의 성립과 확장방향

지금까지 신라왕경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경향도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계획적으로 도시를 건설한 흔적이 잘 남아있어 오늘날에도 그 형태를 거의 확인할 수 있지만, 신라왕경이었던 경주에서는 그 흔적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⁴⁶⁾ 그러나 신라왕경에도 도시계획이 실시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신라에 조방제가 도입되는 시기는 언제이며 어떠한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 의문이 남는다. A.D 469년에 京都에 坊里名을 정하고, A.D 487년에 官道를 수리했다는 『三國史記』 기사로 인해 5세기 후반부터 도로로 구획된 조방제 형태의 체계를 갖추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고고학적 자료가 현재까지는 확인되고 있지

46) 이은석, 「왕경의 성립과 발전」, 한국고고학회 2004.

않아 문헌상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자료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 인왕동 556번지 유적 하층에서 조사된 도로가 6세기대로 편년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⁴⁷⁾ 신라에 방형의 도로가 설치되고 조방제가 실시된 것은 아마도 신라의 국력이 성장해 가는 6세기대로 보아야 타당할 것 같다. 그렇다면 6세기 신라에는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지 기록을 살펴보면 新羅라는 국호의 사용, 순장금지, 東市의 설치, 불교 공인, 律令頒布 등 사회 전반적으로 대단위의 개혁과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불교 공인과 율령반포인데 현재까지 율령의 성격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대개 衣冠令, 官等令, 骨品에 대한 令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⁴⁸⁾ 이와 함께 고고자료를 통해 볼 때 6세기 대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묘제의 변화이다.⁴⁹⁾ 즉, 신라의 고유묘제로 있었던 적석목곽분이 소멸하고 횡혈식 석실분이 등장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묘제가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를 통해 신라사회가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적석목곽분을 조성할 때 드는 막대한 비용을 석실분을 축조하면서 줄일 수 있었고 그곳에서 축적된 비용을 도시건설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밑바탕 아래 신라왕경의 도시계획이 실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 성립기의 왕경

신라왕경의 확장에 대해 말하려고 하면 신라의 도시계획이 맨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인지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시계획의 가장중심이 되는 곳은 바로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며 왕이 거주하는 궁궐이다. 신라초기의 궁궐이 어느 곳이었는지

47) 인왕동 유적의 연대에 대해서는 발굴조사자의 견해를 따랐다.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하층도로에서 고신라기의 토기와 통쪽와통으로 제작한 평기와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통쪽와통은 백제기와 제작수법에 주로 보이는 것으로 신라에서는 6세기 중반경에 도입된 것으로 보고있다.

48) 李基白, 李基東, 『韓國史講座(I)』(古代編), 一潮閣, 1983.

49) 金昌鎬, 「고고학 자료로 본 신라사의 시대구분」, 『仁荷史學』第10輯, 仁荷史學會, 2003.



<사진 4> 월성 출토 ‘在城’ 銘 수막새
(출처: 『新羅瓦磚』 p. 350)

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현재의 반월성을 궁궐로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루는 듯 하며 필자 또한 그 견해를 따르고 있다.⁵⁰⁾ 그 이유는 월성 주변에서 발굴된 해자 유적과 그곳에서 출토되는 유물 가운데 ‘在城’ 명기와 등을 통해 볼 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라왕경의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월성이 중심이 아니라 황룡사가 중심인 것으로 생각된다. 『三國遺事』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⁵¹⁾

新羅第二十四眞興王卽位十四年癸酉二月 將築紫宮於龍宮南
有黃龍現其地 乃改置爲佛寺 號黃龍寺 至己丑年 至十七年 方覃 未幾

『三國遺事』의 기록에서도 확인 되듯이 황룡사는 처음에는 사찰이 아닌 궁궐을 짓기 위한 장소였다. 이러한 사실은 발굴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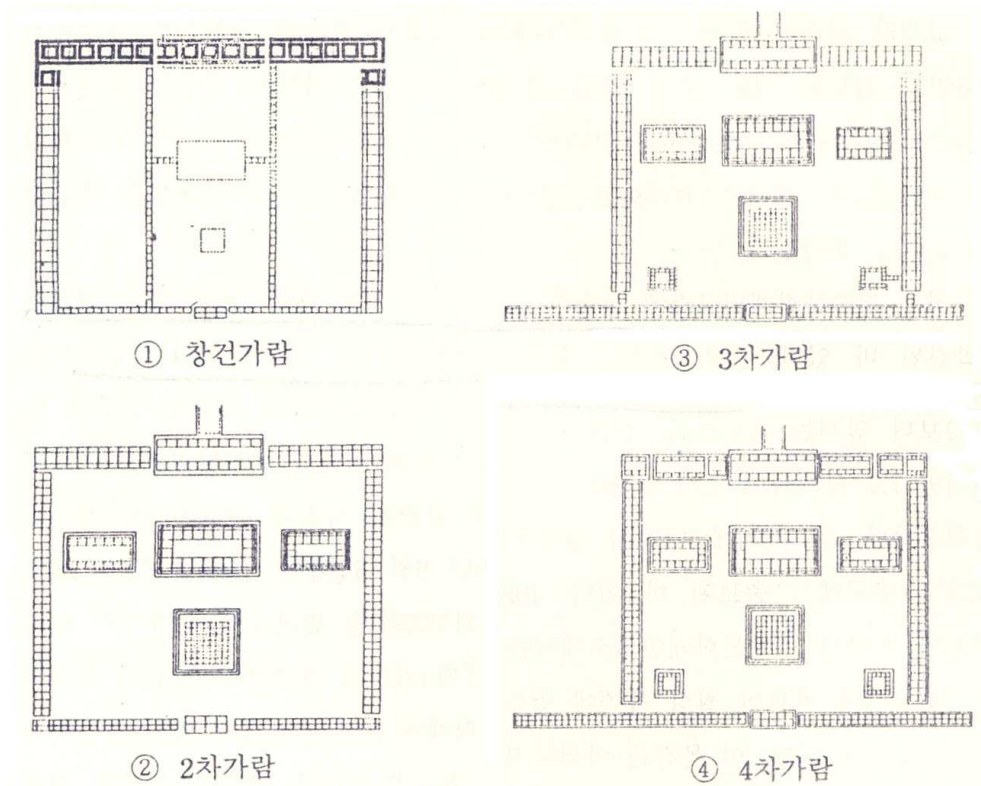
이를 통해 볼 때 궁궐을 월성에서 지금의 황룡사지로 옮기고 그곳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하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궐이 아닌 절로 만들어 지면서 황룡사가 창건되게 되었다. 그런데 도시계획은 월성 중심이 아닌 황룡사를 중심으로 그대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황룡사 창건과 동시에 도로의 조성 및 각종 건축공사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성이 아닌 황룡사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초기 도시계획은 경주분지의 어느 쪽에 시행하였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된다. 경주지역에서 조사된 도로유구를 보면 도로의 축이 서로 맞지 않는데 이는 도시계획이 한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50) 월성에 대해서는 아래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金洛中, 「新羅 月城의 性格과 變遷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李相俊, 「慶州 月城의 變遷過程에 대한 小考」, 『嶺南考古學』 21號, 1997.

51) 『三國遺事』 塔像 第4, 黃龍寺 丈六 條.



<도 8> 황룡사 가람변천도

(출처: 『新羅王京研究』,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第 16輯, 1995. p. 93)

따라서 도로유구의 방향을 살펴보면 신라왕경이 몇 번에 걸쳐 확장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황룡사지 주변에서 조사된 도로유구는 황룡사지의 중심축과 같은 방향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도로유구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며 황룡사 창건시기와 비슷한 유적은 황룡사와 지근거리에 위치한 인왕동 556·566번지 유적에서 확인된 하층도로이다. 따라서 황룡사지와 인왕동 유적의 도로방향과 동일하게 확인되는 유적은 일단 1차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생각된다. 인왕동 유적의 도로유구와 황룡사지 동편에서 확인된 도로유구는 현재의 자북 방향과 일치 하거나 혹은 1°정도 동쪽으로 기울었다. <표 3>에서 제시된 도로유구를 검토해 보면 이러한 유적에는 황룡사지전시관부지유적, 왕경지구내가스관매설지유적, 국립경주박물관전시관부지내유적, 인왕동 556·566번지 유적, 월성해자 도로유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이 유적들이 모두 1차 도시계획에 포

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가스관매설지유적에서 확인된 도로는 사천왕사지 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천왕사지는 삼국 통일과 동시에 만들어진 사찰이며 또한 낭산 일대에 분포한 유적이 선덕여왕릉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통일이후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라왕경의 1차 도시계획은 6세기 중반 황룡사 창건과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그 영역은 자북방향⁵²⁾과 일치하는 도로유구가 확인된 유적이며 초기에는 황룡사지를 중심으로 한 극히 일부분만 조방제가 시행되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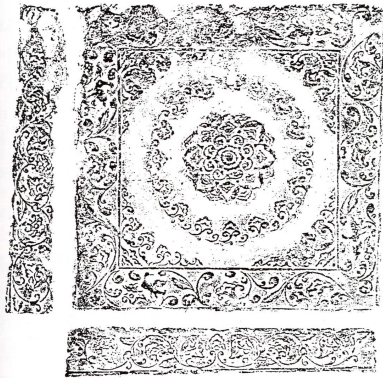
2. 1차 확장기의 왕경

신라왕경이 발전하고 확장하는 시기는 통일이후로 생각된다. 통일이 되면서 인구증가와 함께 도시가 확대·팽창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와 함께 각종 건축공사가 수반되면서 안압지 등이 창건되었다. 이시기 대규모의 건축공사가 행해진 것을 입증하는 유물로 ‘儀鳳四年皆土’銘 기와가 있다. 이 유물은 월성을 중심으로 안압지, 나정 등 경주시내 지역에서 골고루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천을 넘어서는 지역인 동천동과 황성동 일대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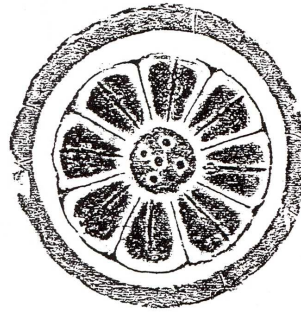
통일이 이루어지는 7세기말 경에 또 다른 중요한 건축공사가 시행되게 되는데 이는 바로 전랑지의 건설이다.⁵³⁾

52) 방위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크게 자북과 진북이 있다. 진북은 북극성을 기준으로 하는 방위 즉 지구의 정북을 말하는 것이고 자북은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북과 자북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 편각이 약 8°정도라고 한다. 이 각도는 북천이북의 도로유구에서 확인되는 방향이다. 나침반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고려시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신라시대에는 별자리를 보고 좌향을 결정지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고려시대 이전의 사지를 조사하면 좌향이 지금의 자북에서 8°정도 기울어진 곳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따르면 경주시의 서쪽부분과 북천 이북에 있는 도로유구가 빠른시기의 것이 되고 황룡사지를 중심으로 한 유적이 자북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나침반이 들어온 고려시대 이후의 늦은시기의 것이 된다. 그러나 분황사 등의 사찰은 자북방향과 일치하는 좌향을 보이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지금의 자북은 캐나다 북부의 프린스오브웨일스 섬에 있는데 자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씩 변동이 있다고 하며 진북도 지구의 세차운동에 의해 조금씩 변동이 있다고 한다.

53) 東潮 田中俊明, 『韓國の古代遺跡』1 新羅編(慶州), 1988. 에 의하면 안압지에서 출토된 보상화문전이 출토된 것을 근거로 전랑지의 창건연대를 7세기말로 비정하였으며, 필자도 이 견해를 따랐다.



<도 9> 전랑지 출토 보상화문
博



<도 10> 전랑지 출토
수박새

(출처: 慶州文化財研究所, 『殿廊址 南古壘 發掘調査報告書』, 1995.)

고신라에 있어 왕궁 건물지의 전형적인 모습은 이른바 황룡사 1차 가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유사한 건물지가 성동동 전랑지이다. 전랑지는 경주시내에서 조사된 건물지 가운데 단일건물지로서의 규모가 가장 크다. 이 건물지의 한 가운데 3×3칸의 조그만 건물지가 있다. 이 조그만 건물지를 중심으로 동쪽부분과 서쪽부분이 좌우 대칭적 배치를 이루고 있다. 가운데 있는 3×3칸의 건물지는 왕궁의 건물 중 明堂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신라에 있어서 왕궁은 7세기말 이후에는 전랑지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 같다. 새로운 왕궁의 건설과 함께 왕경의 도시계획도 확대되었음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새로운 궁궐이 건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월성을 비롯한 안압지 등은 여전히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었다. 따라서 황룡사를 중심으로 한 성립기의 조방제가 시행된 도로는 가장 먼저 증·개축되었고⁵⁴⁾ 새로운 도로는 경주분지의 서쪽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경주시의 서쪽지역에서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서부동 19번지 유적과 북문로 왕경유적 등이 있다. 이들 유적은 그 축조 시기가 7세기 후반 이후부터 8세기 후반에 이르며⁵⁵⁾, 모두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확인되었는

54) 이러한 정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 인왕동 유적이다. 이 유적에서 조사된 도로는 상층도로와 하층도로로 나누어지며 하층도로보다 상층도로의 폭이 넓게 나타나는데 발굴조사자도 이것은 증 개축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필자도 발굴조사자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55) 이은석, 앞의논문, 2004.

데 남북도로의 축이 자북에서 7~8°정도 동쪽으로 기울었다. 이는 성립기의 도로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통일이 되면서 도시의 확대·팽창을 예상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운 것으로 이해된다. 북천을 넘어 현재의 동천동 일대도 도로의 축이 서쪽부분의 도로축과 일치하는데 그것은 이때 이미 북천을 넘는 도시계획이 마련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⁵⁶⁾ 다만, 실제 도로가 정비되고 귀족들이 거주한 곳은 북천을 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북천이북 지역은 아직까지 홍수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북천이남 지역은 북천의 홍수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황룡사와 분황사, 전랑지 등이 건축된 것을 보더라도 북천의 남쪽 하안은 홍수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⁵⁷⁾ 따라서 7세기말에 殿廊址를 중심으로 한 1차 확장이 시작되었고 범위는 ‘儀鳳四年皆土’銘 기와가 확인된 지역인 북천을 넘지 않는 경주시내 지역과 동쪽으로는 낭산일대, 서쪽으로는 서천, 남쪽으로는 포석정 일대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이 시행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차 확장기의 도로축이 황룡사 일대의 성립기의 도로축과 맞지 않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지형이나 하천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3. 2차 확장기의 왕경

통일이후의 신라는 급격한 사회 발전과 도시의 팽창에 걸맞은 새로운 궁궐의 창건과 도로의 정비 및 확장을 이룩해 나갔다. 서라벌은 나라 안의 모든 정보와 물자가 집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 유입과 함께 더 넓은 도시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1차 확장에 성립되어 있던 도시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여기에서 2차 확장기라는 말을 사용하였지만 실제로는 1차 확장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야

56) 황인호에 의하면 동천동 일대에 적용된 동서 450尺, 남북 350尺의 분할법을 북천이남에 소재한 유적들과의 관계에 대입하여 비교해본 결과, 동천동 일대에서 남쪽으로 최단거리에 위치한 북문로유적이 같은 시행범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黃仁鎬, 「慶州 王京 道路를 통해 본 新羅 都市計劃 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2004.

57) 姜奉遠, 「신라시대 경주 북천의 수리에 관한 역사 및 고고학적 고찰」, 『新羅文化』 제25집, 2005, p 344.

할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통일과 동시에 북천을 넘는 도시계획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2차 확장기로 나눈 이유는 북천(알천)이라는 자연의 도전에 대한 응전의 결과는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⁵⁸⁾ 북천 이북으로의 도시 확장이 가장 늦은 이유도 바로 북천의 범람이라는 자연의 도전 때문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삼국사기에 나타난 신라의 홍수관련 기사를 살펴보자.

<표 4>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신라 홍수 관련 기사⁵⁹⁾

연번	년도(서기)	월(음력)	왕/재위 년	홍수 및 피해상황(요약)
1	34	6	유리 이사금 11	대홍수
2	108	5	파사 이사금 29	대홍수, 많은 사람들이 기근
3	114	4	지마 이사금 3	대홍수
4	131	5	지마 이사금 20	큰비가 내려 민가가 떠내려감
5	160	4	아달라 이사금 7	큰비가 내려 알천물이 넘어 집들이 떠내려감. 금성의 북문이 저절로 무너짐.
6	192	5	벌휴 이사금 9	대홍수가 있어 여러 곳에서 산사태 발생.
7	198	5	내해 이사금 3	나라의 서쪽에 홍수가 저서 수해 당한 고을에 1년간 세금을 감면함.
8	212	5	내해 이사금 17	큰비가 내려 집들이 무너지고 떠내려 감.
9	260	여름	첨해 이사금 14	큰비가 내려 30여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함.
10	290	5	유례 이사금 7	큰물이 저서 월성이 붕괴됨.
11	350	4	흘해 이사금 41	큰비가 10일 동안이나 내려 관가와 민가가 떠내려가고 산사태가 발생함.
12	366	4	내물 마립간	큰물이 저서 산사태가 13곳에서 발생.

58) 경주시내는 형산강 본류인 서천과 남천, 북천 등 세 개의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다. 현재는 곳곳에 인공제방이 만들어져 있고, 북천 상류에는 보문호와 덕동호가 건설되어 있어 이들 하천의 범람 위험이 적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에 덕동댐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주시내는 범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지역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확대 팽창에 있어 이러한 자연조건은 큰 장애물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9) 姜奉遠, 「앞의논문」, 2005. 에서 인용.

			11	
13	438	4	놀지 마립간 22	우두군에서 산에서 물이 갑자기 밀려와 민가 50여호가 떠내려감.
14	465	4	자비 마립간 8	큰물이 저서 17곳에서 산사태 발생.
15	469	4	자비 마립간 12	서울 서쪽에 큰물이 저서 민가가 무너지고 떠내려감.
16	483	4	소지 마립간 5	큰물이 지다.
17	483	7	소지 마립간 5	큰물이 지다.
18	494	4	소지 마립간 16	큰물이 지다.
19	496	5	소지 마립간 18	큰비가 내려 알천 물이 넘어 민가 200여호가 떠내려감.
20	589	7	진평왕 11	서울 서쪽에 홍수가 저서 민가 30,360호가 떠내려가고 200명이 죽었다.
21	657	7	무열왕 4	큰물이 저서 300명이 물에 빠져 죽었다.
22	698	7	효소왕 7	서울에 큰물이 졌다.
23	703	7	성덕왕 2	서울에 큰물이 저서 많이 빠져 죽었다.
24	720	4	성덕왕 19	큰비가 내려 13개 곳에서 산사태 발생.
25	785	1	원성왕 1	큰비가 내려 알천의 물이 많이 불었다. (김주원 즉위 실패)
26	797	9	원성왕 13	홍수가 나서 산이 무너졌다.
27	814	5	헌덕왕 6	서울 서쪽에 큰물이 졌다. 사신을 보내어 백성을 위로하고 1년간 조세를 감면함.
28	853	6	문성왕 15	큰물이 졌다.
29	867	8	경문왕 7	큰물이 저서 곡식이 제대로 안 익음.
30	870	7	경문왕 10	큰물이 졌다.

<표 4>에서 제시된 홍수 관련 기사 가운데 경주시내와 분명하게 관련된 기사로는 아달라 이사금 7년의 기사와 자비마립간 12년, 소지마립간 18년, 효소왕 7년, 성덕왕 2년, 원성왕 즉위년 이다. 이 가운데 원성왕 즉위년의 기사는 홍수 피해 사실이 없어 홍수 기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헌기록을 통해 경주시내는 신라시대부터 알천이 범람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북천은 이 후 에도 계속 범람하였고 북천의 치수는 도시의 확장에 가장 큰 장애물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 신라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경주시내에 범람위험을 일으키는 하천은 關川 즉 북천이었다.⁶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북천 이북에 위치한 동천동과

60) 李起鳳, 「新羅 王京의 範圍와 區域에 對한 地理的 研究」, 서울大學校大學院地理學科

황성동 일대는 신라왕경의 도시계획에 있어 가장 늦은 시기에 확장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북천 이북으로 도시가 확장되는 시기는 언제부터일까?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기사 가운데 이 의문에 대해 주목되는 기사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선덕왕이 죽음에 이르러 아들이 없자 군신이 후사를 논의하여 왕의 簇子 周元을 세우려 하였다. 주원은 그 집이 京北 20리에 있었는데 때마침 큰 비가 내려 알천의 물이 불어나 주원이 건널 수 없었다. 혹자가 말하기를 ‘人君의 큰자리는 본래 사람들이 도모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今日에 폭우가 내리니 하늘이 혹 주원을 세울 수 없게 한 것이 아닌가.’⁶¹⁾

- 얼마 안되어 宣德王이 세상을 떠나자 나라 사람들은 김주원을 왕으로 삼아 장차 궁으로 맞아들이려 했다. 그의 집이 북천 북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냇물이 불어서 건널 수가 없었다. 이에 왕이 먼저 궁에 들어가 왕위에 오르자 대신들이 모두 따라 새 임금에게 축하를 드리니 이가 元聖大王이다.⁶²⁾

위의 기록에 의하면 원성왕이 즉위하는 785년에는 당시 1순위의 왕위계 승권자인 金周元이 북천 이북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주원은 태종무열왕의 6세손으로 惠恭王재위시 伊滄으로 侍中에 취임한 바 있는 당시로서는 권력의 핵심에 있던 인물이다.⁶³⁾ 이러한 인물이 북천 이북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이 지역이 늦어도 8세기 중반에는 도로망을 비롯한 도시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면 언제 북천을 넘는 도시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을까?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자료를 검토해 보면 동천동과 황성동, 용강동 등지에서 조사된 유적 가운데 8세기 이전으로 올라가는 유적으로는 황성동 제철 유적과 고분군 등이 있으나 이는 왕경이 확장되기 이전의 유적이며, 왕경 관련 유적은 대부분 8세기 이후로 편년되고 있다. 또한 위의 표를 통해

博士學位論文, 2002.

61) 『三國史記』卷第十 新羅本紀 元聖王卽位

62) 『三國遺事』卷第二 紀異 第二 元聖大王

63) 李基東,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불 때 성덕왕 2년(703) 이후에는 더 이상 경주에서 심각한 홍수와 관련된 역사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신라의 지배계층들이 북천의 홍수를 성공적으로 통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다. 또한 북천 북안으로의 제방공사가 8세기에 접어들면서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 기록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북천 이북의 동천동과 황성동, 용강동 등지에서 조사된 기와건물지에서 출토되는 기와가 대부분 8~9세기대로 편년되고 있고, 북천 이북에 건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천사(715년이전), 동천사(700~800년사이) 등의 축성연대가 8세기 이후인 점을 보면 북천북안의 제방공사가 완료된 시기는 8세기 이후일 것으로 판단된다. 8세기는 성덕왕의 제위(702~737)가 시작되는 시기로 성덕왕은 무열왕계 왕통의 왕권을 강화하여 전제왕권을 확립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외교관계에서도 당나라와 강력한 유대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국내 정치의 안정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국내 정치의 안정과 왕권강화를 바탕으로 도시가 확장되었으며 2차 확장의 시작은 8세기 초에 시작되어 8세기 중반에는 완성되었으며 그 범위에 있어서는 원지 유적이 조사된 용강동 일대까지로 추정된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신라왕경의 성립과 확장에 대해 도로유구와 기와건물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앞서 논의된 바를 간략히 요약하여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신라왕경에 대한 연구는 일제시대에 일본인 학자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된 이래 현재까지 꾸준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발굴조사자료가 축적되어 이를 토대로 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신라인의 왕경에 대한 개념이 형성된 시기는 6부의 형성과 궤를 같이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석문을 토대로 6부가 언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 국가적인 체계를 갖춘 시기를 적석목곽분의 조성과정과 같이 보았으며 왕경 개념의 형성 또한 적석목곽분이 조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보았다.

다음으로 신라에 조방제가 도입되고 도로에 의한 구획이 시작되는 시기

는 신라의 국력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시작하는 6세기중반 으로 보았다. 6세기 중반의 신라는 국호의 사용과 율령반포, 불교공인, 묘제의 변화 등을 통해 획기적이 발전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황룡사의 창건과 함께 도시계획이 시작되었다. 초기의 신라왕경은 황룡사를 중심으로 극히 일부분만 시행되었다. 그러나 통일과 함께 도시의 팽창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궁궐(전랑지)의 창건과 함께 경주시의 서쪽과 남쪽 부분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성립기의 도로는 증·개축되고 전랑지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새롭게 짜여지게 된다. 그러나 북천이북으로는 확장되지 못한 것 같다. 그 이유는 북천 이북의 홍수대비책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에서 이유를 찾았다. 북천은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가장 큰 도전이었다. 북천의 남안은 6세기대에 제방공사가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북천과 지근거리에 있는 황룡사와 분황사 등이 창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천 이북은 8세기 이전으로 올라가는 기와건물지가 거의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또 북천 이북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 등이 모두 8세기 이후로 편년되고 있어 동천동과 황성동 일원은 가장 늦은 시기에 확장된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신라기와와 토기의 편년작업이 선행되지 않아 많은 부분에 있어 오류를 범하고 또한 기와건물지의 성격과 도로유구의 축조 연대에 대해서도 확대해석한 면이 없지 않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공부에 더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본 논문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1. 史 料

『三國史記』

『三國遺事』

2. 著 書

金秉模 외, 『歷史都市 慶州』, 열화당, 1984.

李基白, 李基東, 『韓國史講座(I)』(古代編), 一潮閣, 1983.

李基東,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東潮 田中俊明, 『韓國の古代遺蹟』 1, 新羅編(慶州), 1988.

齊藤忠 著, 孫大俊 譯, 『古代韓國文化와 日本』, 圓光大學校 出版局, 1981.

3. 調 查 報 告 書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新羅王京』 2002.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 仁旺洞 556 566番地遺蹟 發掘調查報告書』, 2003.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 西部洞 19番地 遺蹟 發掘調查報告書』, 2003.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王京地區內 가스관 埋設地 發掘調查報告書』, 1996.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 九黃洞 皇龍寺址 展示館 建立敷地內 遺蹟 3次 發掘調查 指導委員會 資料」 2004.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分皇寺』發掘調查報告書 I, 2005.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殿廊址 南古壘 發掘調查報告書』, 1995.

國立慶州博物館, 『國立慶州博物館敷地內 發掘調查報告書』, 2002.

慶州文化財研究所, 『年報』 第 4 號, 1993.

慶州文化財研究所, 『殿廊址 南古壘 發掘調查報告書』, 1995.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王京遺蹟Ⅲ』 -慶州市 東川洞 791 7B/L 遺蹟-, 2005.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王京遺蹟 I』 -황성초등학교 강당부지-, 2002.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龍寺』發掘調査報告書 I, 1984.

영남문화재연구원, 『慶州龍江洞苑池遺蹟』, 2001.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州 北門路 王京遺蹟 試 發掘調査報告書』, 2003.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州 隍城洞 950-1 7番地 共同住宅 新築敷地 發掘調査報告書』, 2005.

4. 論文

姜奉遠, 「경주 南古壘에 관한 일고찰」, 『新羅文化』 第27輯, 2006.

----, 「신라시대 경주 북천의 수리에 관한 역사 및 고고학적 고찰」, 『新羅文化』 제25집, 2005.

姜鍾元, 「新羅 王京의 形成過程」, 忠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93.

金洛中, 「新羅 月城의 性格과 變遷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金昌鎬, 「古新羅의 都城制 문제」, 『新羅王京研究』,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第 16輯, 1995.

----, 「고고학 자료로 본 신라사의 시대구분」, 『仁荷史學』 第10輯, 仁荷史學會, 2003.

金鎬詳, 「新羅 王京의 宮城址 研究」,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7.

閔德植, 「新羅王京의 都市計劃에 관한 試考」, 『史叢』 35 36,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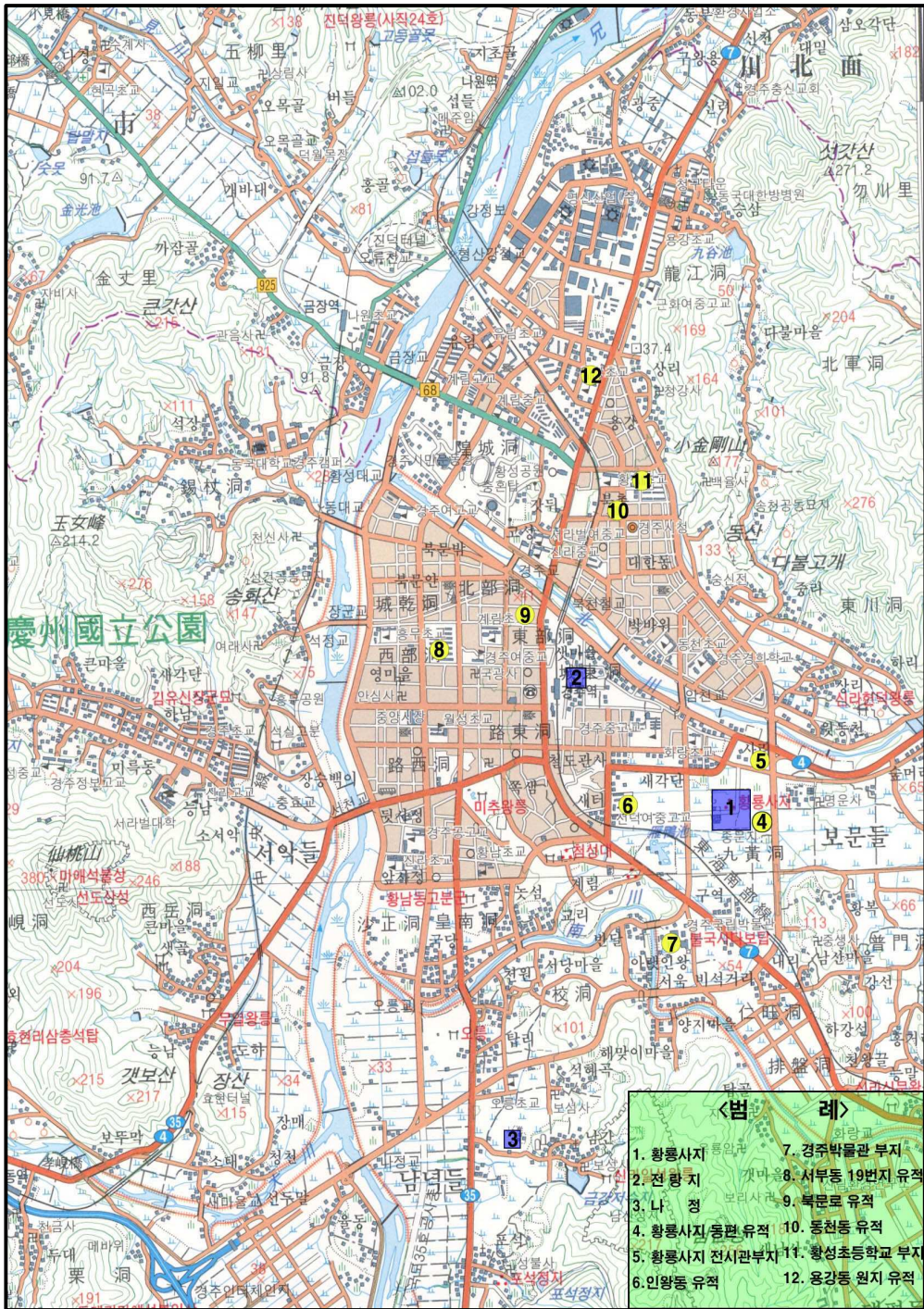
朴方龍, 「新羅 都城 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98.

朴贊興, 「高句麗尺에 대한 研究」, 『史叢』 제44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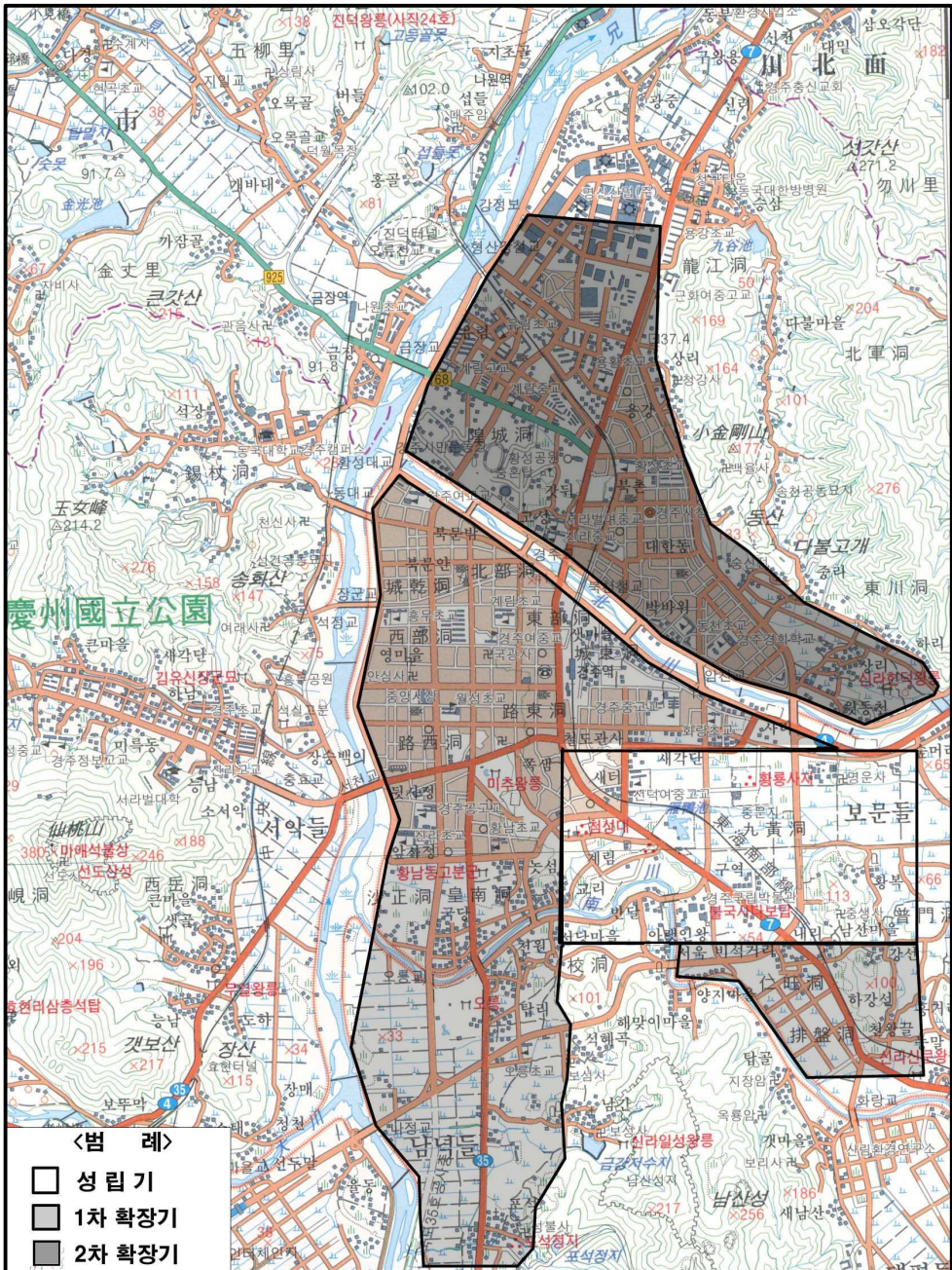
申昌秀, 「中古期 王京의 寺刹과 都市計劃」, 『新羅王京研究』,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第 16輯, 1995.

李康根, 「신라 통일왕조의 궁궐에 대한 단상(斷想)」, 『효현문화』 제 2호, 1996.

- 李起鳳, 「新羅 王京의 範圍와 區域에 대한 地理的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地理學科 博士學位論文, 2002.
- 이문형, 「慶州 蘿井(史蹟 第245號) 發掘調査 概要」, 『慶州 蘿井』-神話에서 歷史로-, 제1회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대회, 2005.
- 이우태, 「한국 고대의 척도」, 『泰東古典研究』 창간호, 1984.
- 李恩碩, 「왕경의 성립과 발전」, 『통일신라시대고고학』, 28회 고고학 대회, 한국고고학회, 2004.
- 李相俊, 「慶州 月城의 變遷過程에 대한 小考」, 『嶺南考古學』 21號, 1997.
- 吳英勳, 「新羅王京에 대한 考察」, 『慶州史學』 12집, 慶州史學會, 1987.
- 尹光鎭, 「新羅王京研究의 一考察」, 慶州大學校大學院 文化財學科碩士學位論文, 1999.
- 尹武炳, 「新羅王都의 方制」, 『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韓國史學論集』, 1987.
- 張順鏞, 「新羅王京의 都市計劃에 관한 研究」,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張容碩, 「新羅 道路의 構造와 性格」, 『嶺南考古學』 38, 2006.
- 黃仁鎬, 「慶州 王京 道路를 통해 본 新羅 都市計劃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碩士學位論文, 2004.
- 藤島亥治郎, 「新羅王都復元論」, 『朝鮮建築史論』 영인본, 경인문화사, 1930.
- 山田陸文, 「新羅金京復元試論」, 『考古學研究』 第159,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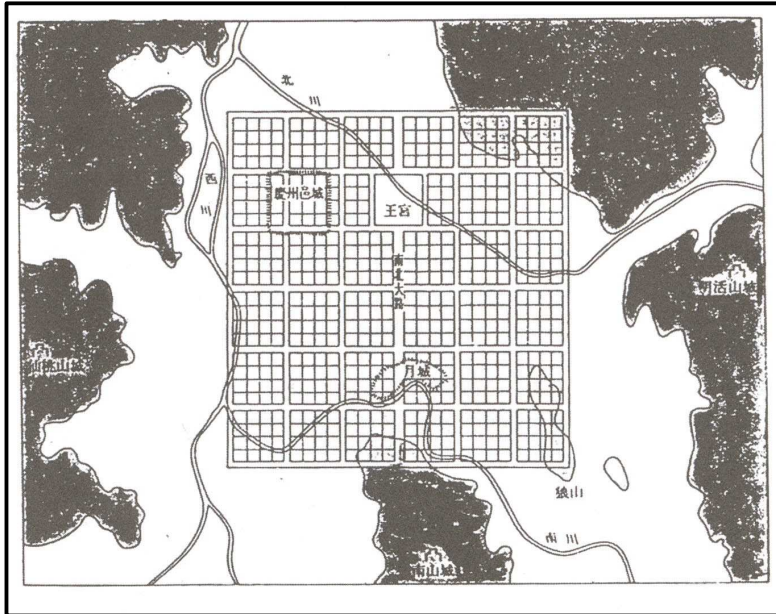
<도 11> 도로유구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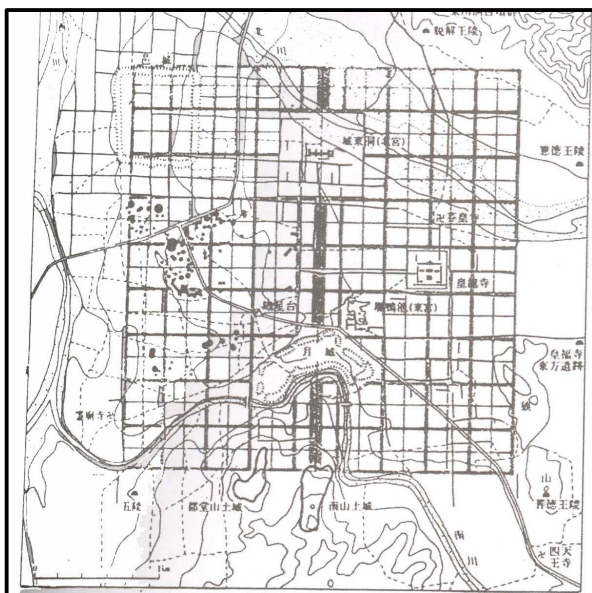
<도 12> 신라왕경 확장방향 추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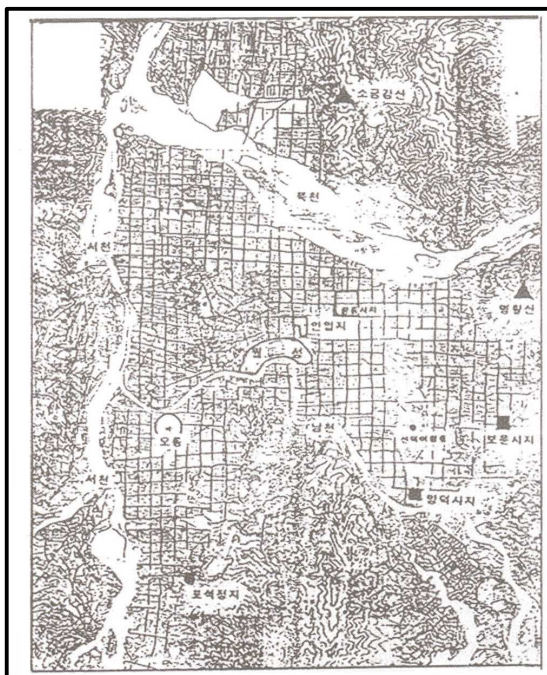
<도 13> 新羅王京 復元案(藤島亥治郎)
 (출처: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新羅王京』 2002. p.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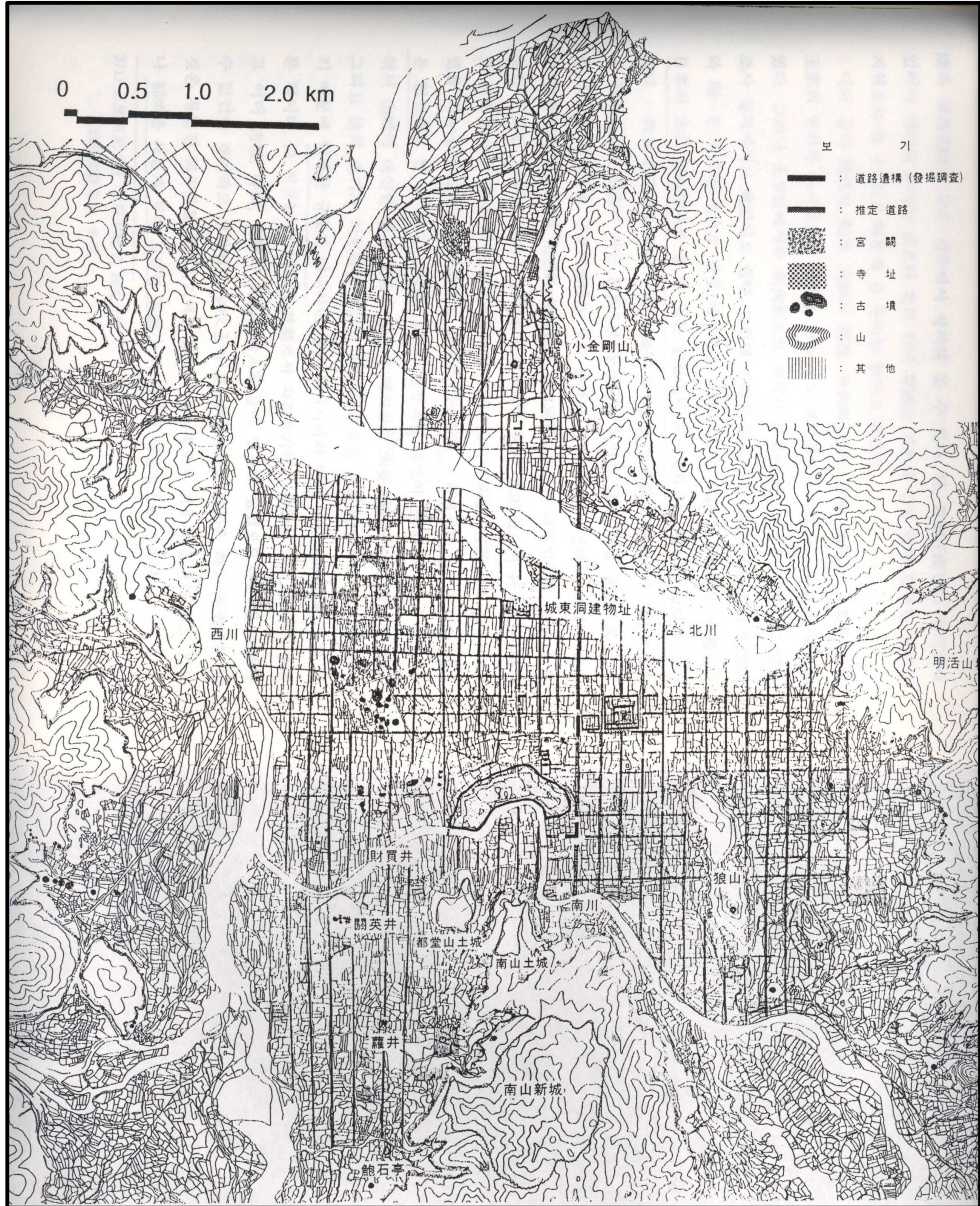
<도 14> 新羅王京 復元案(윤무병)
 (출처: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新羅王京』 2002. p. 46)



<도 15> 新羅王京 復元案(東潮 田中俊明)
 (출처: 立慶州文化財研究所, 『新羅王京』 2002.p.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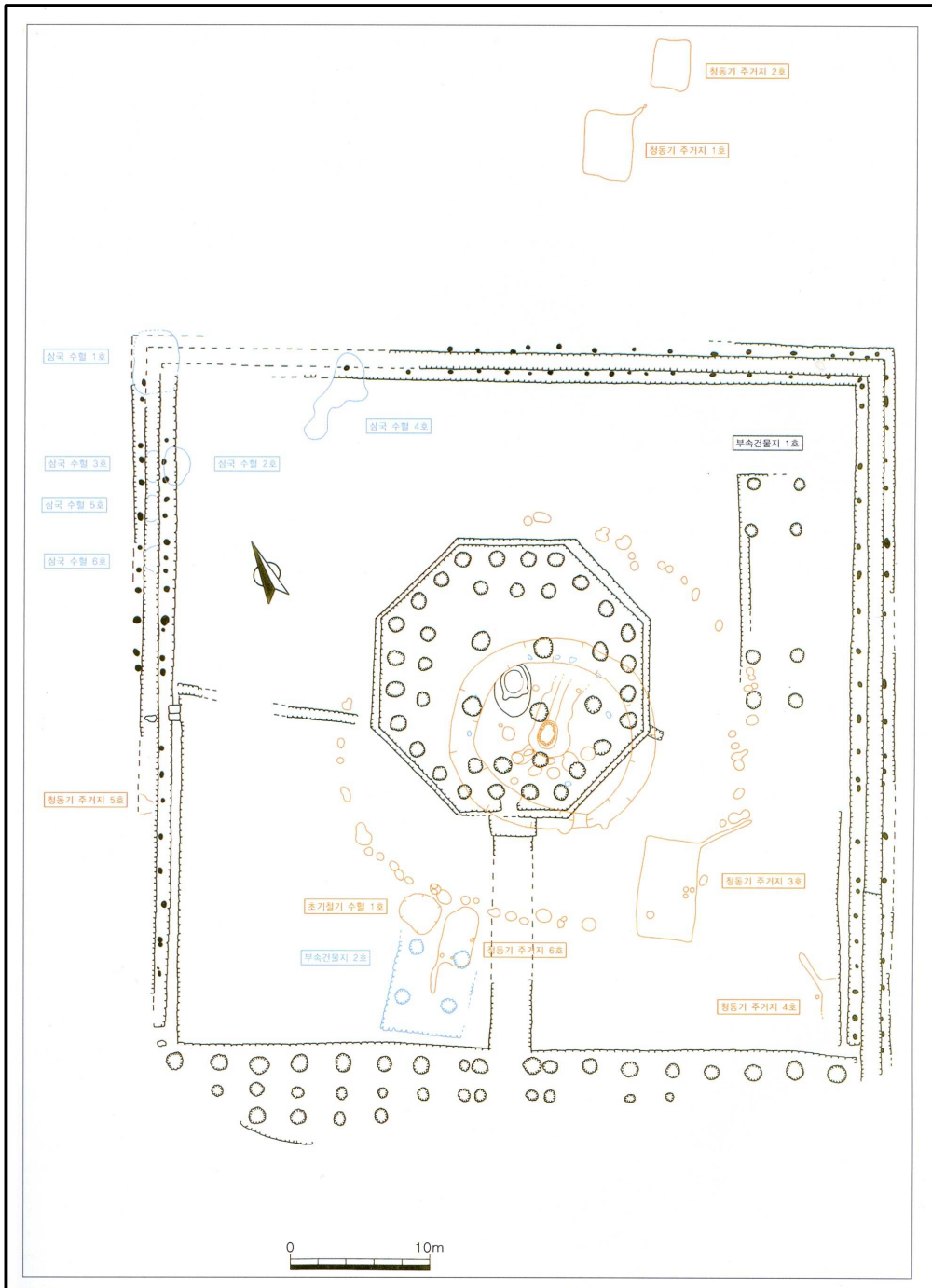


<도 16> 新羅王京 復元案(우성훈)
 (출처: 立慶州文化財研究所, 『新羅王京』 2002.p.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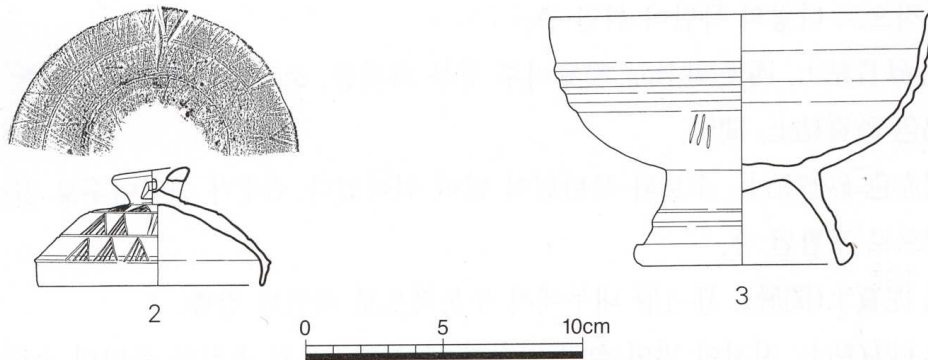
<도 17> 新羅王京 復元案 (박방룡)

(출처: 朴方龍, 「新羅 都城 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98.p.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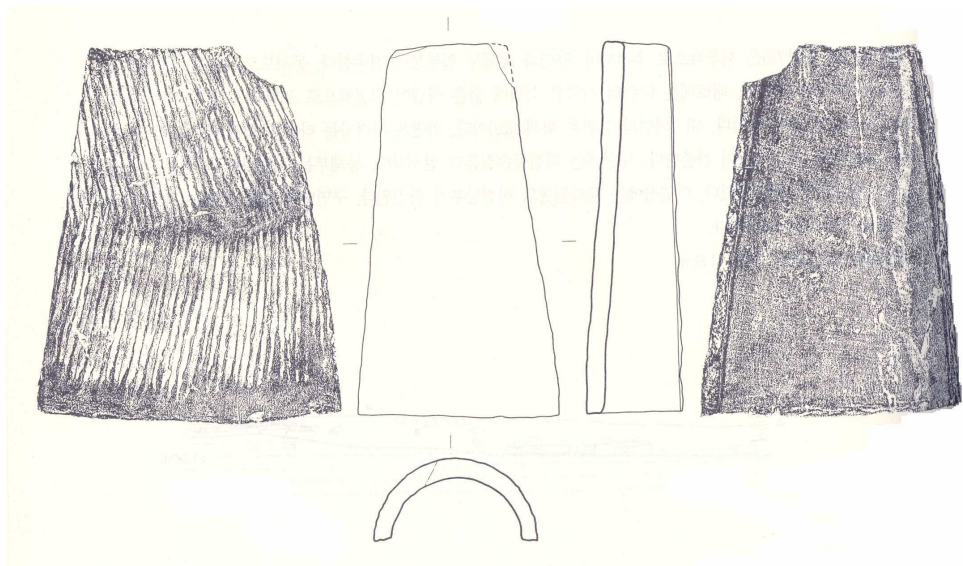
<도 18> 나정 유구배치도

(출처: 중앙문화재연구원, 『慶州 蘿井』-神話에서 歷史로-, 2005. p. 19)



<도 19> 인왕동 유적 도로 출토 토기

(출처: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 仁旺洞 556 566番地遺蹟 發掘調査報告書』, 2003. p. 23)



<도 20> 북문로 유적 동서도로 배수로 內 출토 토수기와

(출처: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州 北門路 王京遺蹟 試 發掘調査報告書』, 2003. p. 38)

A study the Realization and Extension of The Capital of the Silla Kingdom

Kim Joung Man

Department of Cultural Subject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ang Ho

(Abstract)

The Capital of the Silla Kingdom has been researched since the period of Japan's occupation by force. The tendency of the Research on the Capital of the Silla Kingdom has focused on the restoration of city. But recently, the Research on the Realiz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apital of the Silla Kingdom is much progressing also.

This dissertation, based on the achievement of the research until now, investigates the time when the capital was realized, the location where the core was built on and how the capital was developed. This researches them, centered on the road vestiges and the kiwa-tile-edifices, in three divided eras which are the era of the realization, the era of the first extension and the era of the second extension. First of all, the definition of the Capital of the Kingdom is the center of the Politics and the Culture at that time. It is guessed that the royal families and the nobel families mainly lived in it and the range of it is the area where the road vestiges and the kiwa-tile-edifices were found plentifully, almost coincide with GyeongJu city at the present time. There are around 20 places where the road vestiges were excavated in GyeongJu city until now. They are divided into the two directions, one accords with the Magnetic North, the other is inclined 8degrees from the Magnetic North to the east. The road vestiges to accord with the Magnetic North were found just in the neighborhood of Hwangryongsa Temple site and the others, found in the west, the south and the north of GyeongJu city, inclined 8degrees from the Magnetic North to the east. It is very clear that Hwangryongsa Temple site and Bunhwangsa Temple

were established at the first time because the left side of the two temples accord with the Magnetic North. Especially Hwangryongsa Temple site was planed as the site for the Palace and changed into the site for the temple. This is one of the representatives among Silla's temples which were established in the middle of 6th Century. Therefore the Capital of the Silla Kingdom was realized at the same time when Hwangryongsa Temple was established and the realm of it seems where the road vestiges, accord with the Magnetic North, were found.

The first extension was started at the same time of the Unification of three kingdoms. The reason seems that the population was rapidly increasing, informations and goods were converging on the capital. The new palace was established at the time of the unification. It is estimated that the site of it was Jeonranggi at present. The left side of Jeonranggi inclined 6degrees from the Magnetic North to the east. It is differ just 1-2degrees from the road vestiges which were found in the west and the north of GyeongJu city. Besides there is the relic, the kiwa-tile in which '儀鳳四年皆土' was carved , proved that a large scale construction was accomplished at that time. These tiles were excavated in Anapgi, Walsung and Najeong, etc. The places where the relics were excavated means to be built in the era of the first extension. According to the evidences, the first extension of the Capital of the Silla Kingdom was accomplish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palace at the same time of the unification. the realm is estimated, not exceeded beyond the northern river, to Posukjeong with Najeoung in the south. The fact that the first extension was not exceeded beyond the northern river shows that the defences against the flood was lack in the north of the northern river until that time.

It is estimated that the second extension of the Capital of the Silla Kingdom was started from the beginning of the 8th century and was completed to the middle of that century, the estimated time when the defence against the flood in the north of the northern was completed. The reason is that the road vestiges and the kiwa-tile-edifices, investigated in the north of the northern river were later than AD 700 and Limcheon Temple, Dongcheon Temple and others in Bukcheon were later than AD 700 also. Any more record on the flood in GyeongJu was

not found in the records about the flood in Samkuksagi after AD 703. It says that the defence against the flood in the north of the northern river was almost completed in the beginning of the 8th century. Moreover according to the record of the age of Wonsung king in Samkuksagi and Samkukyusa, Kim Ju Won, the first successor of the throne at that time, lived in the north of the northern river. It means that the system of the city in the north of the northern river was completed as good as the nobles could live. Therefore it is estimated that the second extension of the Capital of the Silla Kingdom was started from the beginning of the 8th century and the range was beyond the northern river to the neighborhood of Yongkangdong where the vestige of the garden was found.